

# 프랑스·네셔널리즘의 研究

——Rousseau의 <一般意志>와 자코뱅·네셔널리즘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李 永 泽

## A Study on French Nationalism

Mainly on the Relations between J. J. Rousseau's "volonté générale"  
and Jacobin Nationalism.

By

Lee Young-Taek

<目次>	
緒 言	(2) Rousseau의 思惟課題
1. Rousseau 以前의 네셔널리즘의 理念	(3) Rousseau의 二重性(其一)
(1) 近代 네셔널리즘의 發展段階	(4) Rousseau의 二重性(其二)
(2) 17. 8C의 英國 네셔널리즘의 理念	(5) 그의 Patriotism 와 <一般意志>의 分析
(3) 啓蒙主義	3. 프랑스 大革命과 Jacobin Nationalism
2. Rousseau의 네셔널리즘의 理念	——<一般意志>의 歷史的展開——
(1) 近代네셔널리즘 理念發展史上의 Rousseau의 位置	結論

### Abstract

Nationalism has become of the first importance to nearly all men in the world. It embraces not only the political phase, but also all phases of human life; men work for both themselves and their nations, and even their truths and gods have often been nationalized.

The modern nationalism originated at the end of the 17th and 18th century in England as a struggle protecting the rights of human beings against the absolute powers of their government and dogmatism of religion. In an atmosphere of Enlightenment it was a liberation movement from the fetters of a deadening tradition.

But in the course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Jacobin-Napoleonic wars, nationalism spread over the other "non-Western" countries from France, and consequently it turned into a desire for collective power and self-assertion, and it had a tendency to subject individuals to the political, intellectual, and moral authority of the collectivity. Nationalism in the 20th century has often degenerated politically and spiritually into the greatest danger to liberty and well-being of individual human being as well as to international peace.

Thus the ideal of the group community, the rejection of individualism, the exaltation of group super-individual, collective forces and their victorious march have become specially

characteristic of the second quarter of the 20th century. The extreme pattern of nationalism culminated in dictatorships such as Nazism, Facism and Bolshevism.

Needless to say, above-mentioned national and "democratic" dictatorship sprang up from the "non-Western" nationalism, and it differed from the pattern of the Western nationalism, in which French nationalism is said to be involved; the former was based on the irrational "Romanticism", and the latter on the rational Enlightenment. But this transformation from the humanitarian nationalism to the emphasis on the irrational passion and totalitarian authority of collectivity was already made possible by Rousseau's patriotism and his "volonté générale", which was the core of his nationalism.

In this paper, the humanitarian ideal of English nationalism in the end of the 17th and 18th century has been examined. Furthermore, the way and reason how and why its ideal was accepted and transformed by Rousseau's fertile but unstable mind has been suggested. It also shows how and why the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elements that lurked unconsciously in Rousseau's "volonté générale" was really practised by Jacobins; the Jacobin and its successive works of Napoleonic Wars were the very historical results of Rousseau's "volonté générale", if not its logical consequences.

To conclude, there seems no doubt the attempt to overcome the threats of the prevailing egocentric-individualist anarchism and class-for-class totalitarianism by means of mere authoritarian and totalitarian power of collectivity and appeals to irrational and emotional passion of collectivity without fundamental faith in liberty and dignity of individual human being can only result in the most unbridled reign of terror, which also threatens to destroy the true national unity. The truly voluntary national unity should be based firmly on the principle of the "Idealistic Individualism" which regards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personality of all the members of human society as the only supreme goal and value.

## 緒 言

現代史에 대한 네셔널리즘의 중요성을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地球와 그 위에 居住하고 있는 人類를 現實的으로 區劃하고 있는 政治共同體의 基本的인 單位는 民族國家(Nation-States)와 各己 그 固有性과 特異性을 主張하는 民族(Nation)이며<sup>1)</sup> 이 네이션(Niation)에 대한 最高의 忠誠을 表示하는 特殊한 集團感情인 네셔널리즘은 文化的 모든

1) Toynbee 教授는 <理解可能한 歷史研究의 單位>를 國家・民族을 包括하는 <社會> 혹은 <文明>이라고 말하고 있다. cf. A study of History, Abridgement of Volumes 1—VI. by D. C. Somervell. 1947. Oxford. pp. 1~12

그러나 H. Kohn 은 이에 對하여 批判을 加하고 現代史에 있어서 nations 의 役割이 重大하였음을 指摘하고 있다. Cf H. Kohn, Political Ideologies of twentieth century, Harper Torch Books. 3rd ed 1966. pp. 265~267. <文明이 全時代를 通하여 人間生活과 歷史에 對한 决定的要因이 되어 왔다면, Nations 는 過去 數世紀間의 大事件에 重大한 役割을 擔當하였다.>

Schuman 도 이와 같은 意見이다. F.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1933. 3rd ed §8. The Cult of the Tribal God.에서 그는 現代 國際政治의 巨大한 要因은 Nationalism 입을 論하고 있다.

(3)

領域에 濡透하고 있으며 日常의 個人的 私的領域까지도 좋건 나쁘건 間에 不知不識中으로 그 것의 強力한 影響下에 놓여 있는 實情이기 때문이다<sup>3)</sup>. 또 本質的으로 인터네셔널(international) 입을 主張하는 共產主義諸國家間의 最近의 一連의 動向은<sup>3)</sup> 그들의 行動을 움지기고 있는 基本的 原理는 인터네셔널한 것이 아니고 네셔널한 어떤 것임을 證示하고 있다<sup>4)</sup>. 더구나 네셔널리즘이 對外的으로는 戰爭과 平和, 對內的으로는 自由와 抑壓, C. Hayes의 말을 빌리면 <祝福> 과 呵叱라는 相互對立되는 兩面性을 同時에 內包하고 있으며 現代史의 過程에서는 前者보다도 오히려 後者가 더욱 強한 傾向을 보였다는 事實을 否定할 수 없다면<sup>5)</sup>, 네셔널리즘에 關한 研究는 單純히 아카데미크한 興味의 對象에 그치지 않고 實로 오늘날에는 <人間> 그 自體의 問題에 直結되는 切實하고 緊迫한 要請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파시즘或是 나치즘이나 보수비즘이 現代史에 남긴 慘狀은 周知하는 바 이지만, 이 20C의 戰

66. Louis Snyder. *The Dynamics of Nationalism*, 1994. N. Y. P. I.

Cf. Louis Snyder, *The Dynamics of Politics*, 3) 같은 共產國家인 中共과 蘇聯間의 國境線 紛爭이나, 中共의, 〈資本主義〉國家인 美國과의 接近이 그一例입니다.

4) Hayes는 <.....Marx로부터 出發하였던 社會主義는 그 經濟的理論을 民主的 Jacobinism의 基에 네셔널리즘理論과 結付시켰다.....그 中(社會主義)의 一派는 파시스트의 摧頭에 寄與하였고 그 中 다른 一派는 全體主義의 Nationalism의 다른 型態(Russian Communism)의 摧頭에 寄與하였다. 러시아에서는 社會主義는 Marx 經濟學에 對한 새로운 解釋과 極端的 類型의 네셔널리즘을 發展시켰다>고.

王義之 Marx 經濟學批判 1959. N.Y.P. 262  
G. C. Haus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6th ed. 1959. N.Y.P. 262

Cf. C. 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E. H. S. Nationalism* After 1945, MacMillan.

5) 오늘날 Nationalism 研究家들은 거의 다 Nationalism 을 肯定的 面으로  
그리고는 廣制의 実情을 關聯되어 왔다고 指摘하고 있다.

近代 Nationalism 은 戰爭과 專制와 密接히 關聯되

Cf. Hayes; *Ibid.* pp. 312—321. (war and peace?)

Cf Reyes; *The Anatomy of Peace*. 1946. Passim.

Cf B C Shafer: Nationalism—Myth and Reality—'1955. Ch. X

Cf. E.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1945), pp. 34-35.

標誌 兩大獨裁政治及 民族的大衆의 集團感情 即 一種의 네셔널리즘 위에서만 成立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6)</sup>.

네셔널리즘은 그 發展過程에서 그 元來의 理念이었던 自由主義와 人道主義를 衰失하여 個人을 <베이션>이라는 特定集團속에 吸收 統合하고 對外的으로는 排他的 侵略的인 性格으로 變貌하였으며 個人的 自由라는 當初의 目的을 實現하기 為한 手段으로 看做된 <네이션>이 漸次로 目的 그 自體로 化하는, 그러한 類型의 네셔널리즘이로 變質墮落하여 갔다. 우리는 이러한 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에로의 變質過程을 20C에 와서야, 特히 兩次大戰을 前後하여 現象的으로 明確한 形態속에 目睹하게 되었지만, 그 可能性은 별씨 18C 後半期의 네셔널리즘 理論속에 潛在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프랑스大革命의 過程에서 實踐되었던 것이다.

파시즘·或은 나치즘 및 불체비즘에 依하여 가장 典型的으로 代表되는 大衆獨裁主義 即 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은 H·Kohn이 命名한 바 所謂 <非西歐型>에 屬하며 그 思想的源泉은 英·美·佛等의 <西歐型>의 그것과는 다르다. 即 <西歐型>의 네셔널리즘이 17C의 J. Locke의 影響을 받아 프랑스를 中心으로 普及된 啓蒙思想을 그 思想的源泉으로 하여 出發하였음에 反하여, 獨·伊·露等, 大體로 中·東歐의 非西歐型의 네셔널리즘은 非合理的인 <浪漫主義>를 源泉으로 하여 發生하였던 것이다<sup>7)</sup>. 그런 故로 유럽의 네셔널리즘은 그것을 하나의 同一한 類型속에 一括하여 同一系의 變質過程으로만 把握할 수 있는 不均差的發展과 不均質的인 特色을 갖는다. 이 點에 비추어 研究法으로서는 比較法을 擇하며, 네셔널리즘을 西歐型과 非西歐型으로 2大別하여 世界史的視野에서 이 兩類型을 一種의 兩極概念으로 對比 考察하는 H·Kohn의 方法論은 特異하다고 하겠다<sup>8)</sup>.

그러나 20C의 가장 典型的인 나치즘과 같은 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이 非西歐型으로부터 由來하였다는 理由로 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 擡頭의 要因을 오로지 <非西歐型> 속에서만 追求하고한다면 <西歐型>의 네셔널리즘의 理念만을 誇張·美化하는 偏狹에 빠질 危險이 있다. 왜냐하면 ① <非西歐型>은 <西歐型>과는 다른 知的·政治經濟 社會的基盤 위에서 出發하였다고는 하나, 西歐型에 屬하는 네셔널리즘의 影響과 刺戟을 받아 發生하였고 ② 더구나 <西歐型>에 屬하는 프랑스 네셔널리즘에 가장 重要한 理論的根據를 提供하였던 J·J·Rousseau의 理論속에 이미 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에로의 要素가 潛在하여 있었고, 그것은 하나의 可能性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事實上 프랑스 大革命의 過程에서 Robespierre等의 狂信的 愛國者들에 依하여 서슴없이 實行되었던 것이며, ③ J·J·Rousseau에 依하여 그 理論的基礎가 주어진 프랑스네셔널리즘은 아직 네셔널리즘에 눈 뜨지 못하였던 非西歐地域에 네셔널리즘의 勃興을 促進시켜 그 以

6) 독일의 나치즘이나 伊의 파시즘이 네셔널리즘과 깊이 關聯되어 있었음을 周知의 事實이나 불체비즘도 네셔널리즘에 立脚하고 있었다.

Cf. H. Kohn, Political Ideologies of the Twentieth Century, pp. 173—182.

7) Cf. H. Kohn, Romanticism and the Rise of German Nationalism, The Review of Politics, Vol. 12

Cf. H. Kohn, Political Ideologies of 20c. National Socialism, pp. 157—159.

8) H. Kohn,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1956. N. Y. Preface, and passim,

後의 유럽과 世界에 波瀾重灘한 네셔널리즘의 거센 물결을 이르렀고 마침내는 兩次의 世界大戰 속에 그 極點에 到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勿論 20C의 全體主義的 네셔널리즘 擡頭의 原因을 追跡함에 있어서, Rousseau로부터 자코뱅의 피비린네 나는 狂信의 愛國主義으로, Rousseau로부터 兩次大戰 및 나치즘으로直接的으로 結論을 밟고 나가려는 것은 지나친 論理의 飛躍일지도 모른다. 또 20C의 全體主義的 네셔널리즘 擡頭要因은, 極히 複雜한 歷史的現象의 總體인 네셔널리즘의 本質上 이에 關聯된 諸科學의 分析結果를 驅使한 多角度的인 綜合的 接近法에 依하여 究明되어야 할것이다. 思想史的側面에서만 限定하여 全體主義 擭頭의 要因을 考察한다 하여도 그 作業은 決코 單純容易하지 않다. 나치즘의 擭頭는 Rousseau보다는 오히려 Hegel, Nietzsche 및 Sorel等의 影響이 더 直接的 要因이 될것이다<sup>10)</sup>. 나치즘은 그 自體의 一定한 思想體系가 없어 從來의 여러 思想을 自己의 價值評價 속에 歪曲援用하였을 뿐, <歷史上記錄 된一切의 革命中에서 파시즘은 知的貴族을 갖지 않은 最初의 革命><sup>11)</sup>이었다면, 나치즘의 神話를 形成한 思想의 系譜를 體系的으로 追跡한다는 것은 이 小論에서는 到底히 不可能할 謬더려 無意味한 作業일 것이다.

그러나 19C 以後 20C의 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은 이미 Rousseau에 依하여 그 基本的性格이 賦與되었고 그 方向이 提示되었다고 筆者는 본다<sup>12)</sup>. 따라서 全體主義的 네셔널리즘 擭頭의 要因은 <非西歐型>속에서만 存在하지 않고, 이미 18C 프랑스 네셔널리즘 그 自體 속에 胚胎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의 目的是 ① 近代의 네셔널리즘의 原型인 17·8C의 英國네셔널리즘의 理念을 究明하고 ② 네셔널리즘을 全유럽의 規模의 政治運動으로 까지 擴張·普及시켰던 프랑스大革命에 直接的으로 理論的根據를 提供하였던 Rousseau의 네셔널리즘의 核心인 <一般意志> (volonté générale) 속에 潛在한 狂信의 全體主義의 要素를 分析指摘하고 ③ 그 要素가 實際로 프랑스大革命의 進行中 如何히 實踐되었는가를 檢證하려는 것이다. <非西歐型>의 發展過程은 다음 機會로 미루고 本稿에서는 研究의 時間的範圍를 大體로 나폴레옹 没落(1815)까지로 限定

9) Cf. E. H. Carr, Ibid. 日譯. pp. 38~41.

<……國家의 政治的權威의 再建은 兩次世界大戰으로부터 너무 強한 刺戟을 받았던 故로 그것의 戰爭에 對한 關係는 原因인 同時に 結果이기도 하였다> p. 41.

네셔널리즘의 極點이 兩次大戰이였음을 指摘하고 있다.

10) 나치즘의 形成을 純全히 精神史的側面에서만 다룬 著書로서는 J. F. Neurohr, *Der Mythos von dritten Reich, zur Geistesgeschichte des Nationalsozialismus*. 1957. 日譯, 山崎章甫 村田宇兵衛 第三帝國의 神話—ドイツ精神史, 未來社, 1963가 있음.

11) E. Heimann, *Capitalism, Communism, Facism and Democracy*, 1945 土屋譯昭和 24年 p. p. 248~249. 그는 파시즘 研究方法으로서 社會政治의 考察만으로서는 不充分함을 認定하고(pp. 223~225) <……파시즘은 確實히 知的先驅者를 가지며 또 知的인 業績을 利用하는 것이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파시즘은 그러한 業績들을 自己의 價值評價에 適合시켜야 했다. 한편으로는……民主主義와의 사이에 存在하는 關係, 他方으로는……社會主義運動과의 사이에 存在하는 關係는 파시즘에게서 그 類似性을 전혀 發見할 수가 없다. 그 社會構成에 있어서 獨일 파시즘은 反主知의이다. 歷史上記錄된一切의 革命中에서 파시즘은 知的貴族을 갖지 않는 最初의 革命이다……>(p249)라고 말하였다.

12) 이 點에 關해서 E. H. Carr도 20C의 네셔널리즘과 Jacobin 네셔널리즘의 聯關性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다. Cf. E. H. Carr Ibid. 日譯p. 29. <20世紀에 있어서의 네셔널리즘과 社會主義와의 同盟의 起源은 자코뱅黨의 革命的 네셔널리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Hayes, idid. p. 308 參照할것.

하였다. ④ 끝으로 結論에서, 個人과 國家와의 相反對立되는 두 價值를 如何히 調和하느냐 하는 問題意識 밑에 ⑦ 프랑스·네셔널리즘의 特色 ⑧ Rousseau의 二重人格의 性格論的 考察 ⑨ 우리가 立脚하여야 할 至上最高의 價值原理로서의 理想主義의個人主義에 關하여 論하려는 것이다.

## 1. Rousseau 以前의 네셔널리즘의 理念

### (1) 네셔널리즘의 發展段階

Rousseau의 네셔널리즘의 理念을 論하기 前에 먼저 西歐 네셔널리즘의 發展過程을 概觀함으로써 네셔널리즘 理念史上에서 占하는 Rousseau의 位置를 밝힌 다음 그의 思想에 先驅하고 그에게 影響을 준 네셔널리즘의 理念에 關하여 言及하기로 한다.

近代의인 意味로 使用하는 Nationalism은 모든 地域에 同時期的으로 發生한 것은 아니다. 그 것은 各己相異한 時期에 各己相異한 內容과 基盤 위에서 發生한 不均差의 不均質의in 發展을 하여 왔다. 이런 까닭에 學者마다 제 各己獨特한 觀點에서 네셔널리즘의 發展段階나 類型을 提示하고 있다<sup>13)</sup>. 네셔널리즘의 發展區分 및 分類의 多樣性은 오히려 그것에 對한 우리의 올바른 認識을 混亂케 하여 출 程度이다.

그러나 우리는 歷史全體를 通하여 個人과 國家와의 關係에 對한 두 가지의 基本的인 態度가 있어 왔음을 發見할 수 있다. 即 其一은, 個人은 그의 能力を 完全히 實現하기 為해서는 宜當히 國家의 權威와 國家的目的에 從屬되어야 하며 個人은 國家的目的 達成을 為한 한낱 手段에 不過하다고 생각하는 態度이다. 其二는, 國家 或은 民族은 目的 그 自體가 아니며 個人的 完成을 為한 手段이며 人間社會(The Society of Men)가 真正한 人類社會(Human Society)에로의 轉移를 為한 過渡期的 手段에 不過하다는 態度가 그것이다. 叙上한 態度는 確然히 둘로 區分되는 것은 아니며 時代와 地域에 따라 뉘앙스가 있었고 兩者가 同時に 混在하는 境遇가 있었음은勿論이다. 그러나 個人과 國家와의 關係에 對한 態度가 如何했느냐를 區分基準으로 삼아 近代 네셔널리즘의 發展過程을 大體로 下記의 4時期로 區分할 수 있다. 第1期는 中世末부터 近世初에 걸쳐 國王을 求心力으로 封建的分立을 統一하여 所謂 近代國家가 成立된 時期로서, 맨먼저 絶對國家를 形成한 英·佛에서 第1期의 네셔널리즘이 發生하였다. 이 時期의 그것을 便宜上 <前近代的> 네셔널리즘라고 命名하기로 한다. 第2期는 1688年の 名譽革命을 前後로 하여 美國獨立을 거쳐 프랑스 大革命의 前期인 1793年에 이르는 時期의 네셔널리즘으로서 이亦是 英·美·佛에서 먼저 發生하였다. 이 時期의 그것을 <人道主義的>(Humanitarian)네셔널리즘이라고 命名하기로 한다. 第3期는 大體로 프랑스大革命의 後期인 1793年을 前後하여 나폴레옹時代의 終末(1795~

13) 네셔널리즘의 諸類型에 關하여서는 Louis. L. Snyder(ed) The Dynamics of Nationalism, 1964. (pp. 47 ~54)에 紹介되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 紹介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重要한 것中에 다음의 著書가 있다.

Cf. E.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pp. 3-5.

Cf. C. M. Woodhouse; The New Concert of Nations. 1964. Dufour Editions. pp. 17-18.

(7)

(7) 1815) 까지에 이르는 時期의 것으로便宜上 <愛國的>(Patriotic) 네셔널리즘이라고命名하기로 한다. 第4期는 1815年을 前後로 第2次世界大戰에 이르는 時期의 것으로主로 中·東歐의 所謂 <非西歐型>의 네셔널리즘이다. 이를 <全體主義的>(Integral or Totalitarian) 네셔널리즘이라고命하기로 한다. 이것을 形成한思想의基盤은 政治的浪漫主義·民族有機體論等이며, 思想의名하기로 한다. 이것을 形成한思想의基盤은 政治的浪漫主義·民族有機體論等이며, 思想의名하기로 한다. 이것을 形成한思想의基盤은 政治的浪漫主義·民族有機體論等이며, 思想의名하기로 한다. 第5期라고 부를수 있는, 從前의 그것과 本質上 確으로는 Hegel로부터 Hitler에 이르고 있다. 然而區分될 수 있는 特徵을 가진 네셔널리즘의 出現與否에 關하여서는 速斷할 수 없고 좀 더 現代中가 經過된 然後에야 判明될 수 있을 것이다.

敘述上 한 단계 단계를 附記하는 個人과 國家와의 關係에 對한 基本的 態度를 基準으로 한 理念의 구분은 만큼 반드시 時間의 으로 正確한 구분은 아니고 그 大體의 一般的 趨勢임을 附記하여 둔다.

하여 끝나. 第1期의 네셔널리즘을 <前近代的>이라고 命名한 理由는 그것이 嚴格한 意味에서 近代의 인내 내용을 아직은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近代의 意味의 네셔널리즘에 對한 論理的定義를 내리기에는 至難한 問題이다. 그러나 H·Kohn의 表現을 빌어 네셔널리즘을 <全歷史를 通하여 存續하는 人種의 素材로서의 民種(Nationalities)이 아닌, 國民(Nation)이라는 意識된感情, 民族여 왔던 人民全體의 生活속에 支配的인 鼓舞感…… 모든 個人을 恒久의 意識(Nationalbewusstsein), 人民全體의 生活속에 統一體 속에 結合시키는 目的의 意情動的 統一體 속에 結束시키는 意志와 行動의 恒久의 統一體 속에 結合시키는 目的의 意志><sup>14)</sup>라고 規定한다면, 第1期에서는 아직은 國民(Nation)이라는 보다 더 抽象的이고 普遍的의 自覺은 發見되지 않는다. 이 時期의 國家(State)의 核心的擔當者は 國王이었지 一般民衆은 그 것으로부터 疏外된 存在이었다. <臣民>과 <國家>(State)는 있었으나 <國民>(Nation)은 아직은 存在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5)</sup>. 그러나 近代的 네셔널리즘은 <近代國家>成立期인 이 即와 關聯되어 發生하였다.

期와 關聯되어 發生하였다. 人間은 集團 속에서 誕生하여 集團 속에서 산다. 그런데 個人이 集團 속에 있으면서 自己와 集團과의 分化·對立을 意識하게 되는 것은 그 集團이 相當히 成熟하여 그 使命을 完了한 다음이 며, 무엇보다도 個人이 自己를 自由롭고 理性的인 存在로 自覺함에 따라 이미 그 使命을 다하였고, 여 버린 集團, 따라서 그 集團의 利益이 自己의 그것과 一致하지 않는다는 意識이 發生하여, 그 集團의 存續理由에 懷疑를 품게 된 然後의 일인 것이다. 第1期의 絶對國家內에서 自己意識을 아직 갖지 못하였던 個人은, 다만 그가 偶然히 屬하고 있었던 國家 또는 民種과의 分化·對立이 없이 漠然히 無意識의 으로 國家 속에 統合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이 點에 있어서 國家는 絶對至上의 地位를 占有하고 있었지만 意識되지 않고 事實上으로만 至上의 地位에 있었음에 不

<sup>10</sup> H. Kahn: Revolution and Dictatorships, 1943. London, Oxford. p. 68

15) Cf. E. H. Carr, *ibid.* pp. 6-10.

15) Cf. E. H. Carr, *ibid.* pp. 6-10.  
 Cf. F. Hertz; *Nationalities in History and Politics*, pp. 274-314. Cf. *Nationalism, a Report by a Study Group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p. 96. <19世紀의 크로치아의 地主는 그의 農民보다도 馬(馬)을 크로아로 國民의 一員으로 看做하지 않았는가라고 까지 評判되었다>

遇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國家에 對한 感情은 어느 편이냐하면 自然的이고 無意識의 人種意識(Tribalism) 或은 鄉土感情(Localism)과 같은 第1次的集團感情에 類似하였지 叙上한 보다더 抽象的이고 意志的인 第2次的集團感情인 哲學理念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자 17·8C에 이르러, 지금까지 漠然히 國家의 成員으로서 埋沒되었던 個人이 自己의 全部가 國家에 吸收되기 않고 國家의 一成員으로서의 自己 以外에, 獨自의이고 自律的인 人間存在로서의 自己 를 自覺하였을 때 國家와 個人과의 對立이 나타났으며 第2期의 <近代的>哲學理念은 이때에 비로소 發生하게 되었다.

이러한 自律的인 個人으로서의 自覺은當然히 個人的 自由와 尊嚴에 對立하는 既存國家의 不當한 強制規制에 對한 批判과 反抗으로 表出되었는데, 그러나 初期에는 國家의 存在 그 自體의 否定을 意圖하지는 않았다. 絶對最高의 價值의 搞保者로서 自覺은 個人的 成長에 必要한 限에 있어서 國家의 存在意義는 認定되었다. 換言하면 個人은 目的이요, 國家는 그 目的達成의 手段으로 看做되었던 것이다<sup>16)</sup>. 이리하여 個人에 對한 不合理하고 極端的인 國家權力機能을 個人的自由의 限界內에 制限하려는 思想이 擾頭하였다니 이 思想이 17·8C의 個人主義이며 啓蒙思想이었다.

近代 自由主義는 原來 이 個人主義를 基礎로 하여 出發하였으며<sup>17)</sup> 近代的 哲學理念의 原來的理念은 어느 特殊的 集團全體의 自由나 獨立이 아니고 <個人의 自由>라는 概念과 密接히 關聯되어 出發하였던 것은 注目할 事實이다. 이러한 個人主義 即 自由主義思想에 基盤을 둔 最初의 哲學理念은 17C에 英國에서 發源하였고 그것은 J.Locke의 思想 속에 集約되었다. 그의 影響을 받은 프랑스思想家들에 依하여 所謂 <啓蒙思想>은 유럽全域에 周知되었고 美國獨立의理論의 基礎로 되었다.

프랑스大革命은 이 啓蒙思想의 가장 典型的인 實踐的形態로서 <近代的>哲學理念을 가장明確한 形態로 誕生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以外의 유럽全域에 哲學理念의 激情을 불려 일으켜 놓았다. 그러나 啓蒙主義時代의 個人主義에서 出發하였던 프랑스 哲學理念의 當初의理念은 프랑스大革命의 發展過程에서 그리고 나폴레옹戰爭의 過程에서 漸次로 變質墮落하였다. 이에 哲學理念은 그 第3期에 이른다. 今世紀의 全體主義의 獨裁主義의 核心地域인 獨·伊·露 等의 所謂 <非西歐型>의 哲學理念은 元來 自發的으로 發生하지 않았다. 그것은 프랑스大革命과 나폴레옹戰爭에 刺戟되어(그러나 그 思想의 源泉은 當初의 프랑스大革命의 理

16) 그런故로 이 時期의 國家를 夜警國家(Polis State), 20C의 國家를 福祉國家(Welfare State)라고 通稱 한다.

17) H. J. Laski도 <自由라는 것은 近代文明에 있어서 個人的 幸福을 保障하는데 必要한 社會的條件에 아 무런拘束이 加하여 질 수 없다는 것이다. ……自由는……個人이 外部로 부터 壓迫됨이 없이 각己自己의 欲求하는 生活의 方途를 選擇하는 것을 意味한다. 人間은 自由에로 強制되는 것은 아니다. ……自由는 法을 遵守하는 데서 찾을 수 없다. 人間은 自己가 重要하다고 생각한 領域에서 그 生活의 外的規律에 依하여 妨害되지 않고 또한 아무런 挫折感을 갖지 않을 때에 自由로운 것이다>(CH. J. Laski, *Liberty in the Modern State*, 1947. 序論)고, 自由의 本質이 個人的 自由에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또 J. H. Hallowell도 自由主義는 個人主義의 世界觀의 政治的表現으로서 그 基礎는 個人主義임을 指摘하고 있다. Cf. *The Decline of Liberalism as an Ideology*, 1943. pp. 25~98. *passim*.

(9)

念은 아니었다)發生하였다함은 既述한 바이커니와, 네셔널리즘은 이에 第4期으로 進入한다. 이第4期의 <全體主義的>네셔널리즘에 關하여서는 此後 別途로 論하기로 하고 本稿의 研究의 時間의範圍는 主로 第3期까지로 限定하였다.

第2期의 <人道主義的>네셔널리즘으로부터 第3期의 <愛國的>(Patriotic)네셔널리즘으로의 轉移에 思想的架橋를 놓아준 人物이 바로 Jeane Jaques Rousseau(1712—1778)이었다. 이제 第3期의 네셔널리즘 理念으로의 架橋의 役割을 遂行한 Rousseau의 思想을 理解하기 為해서 近代的 네셔널리즘의 原型이 되는 17C 英國의 네셔널리즘의 理念과 그 思想의 基盤인 啓蒙主義에 關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 (2) 17·8C의 英國네셔널리즘의 理念

第2期의 近代的(人道主義的)네셔널리즘은 最初로 英國에서 發現되었다 함은 既述한 바 이거니와, 17C 英國네셔널리즘의 理念은 清教徒思想(Puritanism)에서 由來하였음은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英國은 大陸의 諸國家와는 달리 國家와 宗教間의 燭烈한 闘爭을 經驗한 적이 없었고, 이미 近代國家의 統一을 完成한 以後였으므로 英國네셔널리즘은 獨·伊等의 分裂國家와 같은 <外國人の 框梏>(Alien Yoke)으로 부터의 集團的獨立을爭取하기 為한 闘爭은 아니었다. 英國 네셔널리즘은 權威로 부터의 個人的自由의 確認, 自國의 <政府> 및 <教會>에 對한 人格의 自己主張이라는, 처음부터 個人的自由의 觀念과 密接히 關聯되어 出發하였던 것이 그 特色이었다. 이러한 自由는 J·Milton(1608—1674)이 말한 바 <奴隸狀態와 偏見의 框梏으로 부티의 人間의 救濟>를 意味하였으며, <나를 어떤 自由를 中에서도 알고 말하고 良心의 命令에 따라 自由롭게 討論할 수 있는 自由를 다오><sup>18)</sup>라는 그의 부르짖음 속에 이미 澄澈히 表明되어 있었다. 17C 英國네셔널리즘의 二大理念은 清教徒革命의 指導者 크롬웰(1599~1658)의 다음 말속에 더욱 明白히 表明되었다. <良心의 自由와 人民의 自由——이 두 가지는 神이 우리에게 주신 榮譽로운 것으로서爭取하여야 할 것이다><sup>19)</sup>. 또 <神이 이 世界에서 갖는 가장 큰 두 가지 關心事가 있다. 그 하나는 宗教의 關心이며……또 다른 하나는 市民的自由와 國家の 利益이다>. 即英國에서는 <自由教會運動>(Free Church Movement)>이 <自由國家運動>(Free State Movement) 보다 먼저 일어나 後者를 促進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英國네셔널리즘은 <基督教人の 賦된 自由>를 為한 <個人의 良心의 自由>라는 宗教的·倫理的인 個人主義로 부터 政治的·經濟的 自由를 要請하였음은 그 後의 經濟第一主義의인 네셔널리즘과 比較할 때 實로 意味深大한 바가 있다.

清教徒革命에서 表明된 叙上의 理念은 漸時 王政復古期에 消滅된듯 하였으나 名譽革命속에 再生 再確認되었다. <權利章典>은 王權에 對한 法의 優先權·法律制定에서의 議會의 優位, 正義의 公平性, 個人的諸權利의 保障, 思想과 出版의 自由 및 宗教上寬容 等의 諸原則를 모든 國

18) John Milton, Areopagitica, London1728, pp. 44—46. L. Snyder, Ibid, pp. 80—81.

19) 1654年9月4日 크롬웰이 議會에서 行한 演說임. Cf H. Koh, Nationalism, p. 18.

民의 共同的基礎로서 定礎하였고, 自由를 <이 나라 人民의 真正하고 古來的인 諸權利><sup>20)</sup>로서 英國의 歷史的 傳統속에 깊히 뿌리를 박아 놓았다. 名譽革命은 自由와 寬容에 立脚한 새롭고 伸張的 秩序를 國民生活과 國民性 속에 豈固히 移植하여 놓았던 故로 英國은 그후의 權威主義的・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의 試鍊을 克服하여 民主主義的・人道主義의 네셔널리즘의 性格을 大體로 維持하여 왔다. 民主主義와 人道主義(Humanitarianism)는 和解・討論・妥協에 依하여서 단 全國民生活 속에 浸透할 수 있는 것이다. 名譽革命의 理念을 理論으로 整理・確立한 人物이 John Locke(1632—1704)인 바 當時의 英國네셔널리즘의 個人主義의・人道主義의 理念은 그의 <政府論>속에서 更 우 明確히 發見할 수 있다. <人間은 自己가 志向하는 目的達成을 爲하여 集團狀態로 돌아가며, 이 때에 集團은 個人이 達成하려는 目的에 反하는 諸障礙를 除去하여 주는 것만으로써 充分하다. 따라서 萬若에 集團이 個人을 어느 다른 個人的 不確實하고 恣意的 인 意思에 服從시키는 것은 欺瞞이다><sup>21)</sup>이 個人主義가 當時 英國네셔널리즘과 偶然히 때를 같이 하여 擡頭하였던 中產階級의 利益만을 代表하지 않았음은 아래의 Locke의 말속에서 證示된다 <奴隸制度는 極히 不道德하고 悲慘한 人間의 身分이며, 我國民의 寬大한 氣質 및 勇氣에 直接的으로 背反되는 것이므로 紳士는 勿論이거나 英國의 一個 平民일지라도 奴隸狀態를 請願한다는 것은 到底히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sup>22)</sup>. 그의 哲學이 征服에 依하지 않은 人間의 自由・尊嚴・幸福은 모든 國民의 基本原則이며, 國家는 그 成員의 自由로운 同意위에 依據하는 道德的信託(Moral trust)이라는 두 基本原則을 強調함으로써 中產階級 以外의 利益에도 寄與하였다. 어찌된 英國네셔널리즘은 個人과 個人的 權利 및 人類愛를 強調하는 當時의 <啓蒙主義時代>의 精神위에 基盤을 두었던 것이다. 비록 自由는 그 當時 完全히 實現되지 못하고 아직은 少數 政治家에 依하여 左右되었다고는 하나 紹對主義가 橫行하고 있었던 當時의 유럽에서 英國은 한 國民的精神이 모든 制度 속에 스며들어 支配・被支配階級間의 間隙을 連結하는 活力의 紐帶를 이루고 있었던 唯一한 나라였던 것이다<sup>23)</sup>.

Locke 속에 集約된 英國民의 自由主義思想은 프랑스知性人の 羨望의 對象이었다. 特히 Voltaire의 英國訪問(1726~1729)과 英國民의 生活과 自由에 關한 그의 報告는 英國的思想을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全域에 널리 傳播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當時 프랑스는 2百年間이나 유럽의 知的 指導者가 되어왔고 프랑스語는 全유럽 教養層의 共通語였다. 이제 英國의 個人的自由와 國家組織은 프랑스 思想家를 媒介로 周知되었고 프랑스人の 合理的思考能力과 佛語의 明析性을 通하여 18C 유럽人の 一般的意識 속으로 吸收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각其 特殊한 土壤위에서 變形되었다. 그 中에서도 新生 美國은 <모든 人間은 平等하게 誕生하였다는 것, 人間은 神으로부터 不可讓渡의 諸權利를 賦與받았다는 것, 이 諸權利中에는 生命・自由 및 幸福追求의 權利 等이

20) English Historical Documents 1660—1714. III(London, 1953)p. 57. ed, by Andrew Browning.

21) J. Locke, Two Treaties on Government, Chap. 4.

22) John Locke, Ibid, from H. Kohn, ibid, p. 18.

23) G. M. Trevelyan, The English Revolution 1688—9, Oxford, 1956 p. 240.

包含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真理는 自明的事實임을 主張한다>는 原則위에 세워진 最初의 나라였다. 이 <真理>는 美國에서 네셔널리즘의 核心을 形成하였다. 이 新生國家는 共同의 先祖·宗教·人種·言語·文字 및 傳統 等의 自然的共同性위에 形成된 것이 아니고, 政治的權利와 個人的自由 및 寛容을 위한 共同的努力위에서 誕生된 것이다. 새로운 發展을 阻止하는 封建的過去의 殘滓가 없는 新天地의 無限한 領域에 建國한 이 新生國家는 <非西歐型>의 네셔널리즘과는 달리 中世의 封建的·宗教的傳統의 重壓과 歷史的過去의 어둠속에서가 아니라, 人民意思에 依한 自由속에서, <啓蒙思想>의 밝은 빛 속에서 誕生한 國家(Nation)이었던데서 그 特色를 發見할 수 있다. 이와같이 英國에서 發源한 自由主義는 美國에서 네셔널리즘의 形成에 直接的 影響을 주었고 또 美國에서 네셔널리즘이 立脚한 <真理>는, 새로운 프랑스네셔널리즘을 誕生케한 프랑스大革命勃發의 重要한 要因이 되었다.

### (3) 啓蒙主義

上述한 英·美의 네셔널리즘은 當時의一般的時代思潮였던 <啓蒙主義>라고 하는 共同의 知의 基盤위에 形成되었다. 프랑스大革命의 理念도 啓蒙主義를 그 知的背景으로 삼았던 만큼, 프랑스大革命의 產物인 프랑스네셔널리즘의 性格을 理解하기 為해서는 啓蒙主義思想의 基調에 對한 理解를 要하게 된다.

<啓蒙主義>(Enlightenment, Aufklärung, illumination)는 地域과 思想家에 따라 그 強調點이 다르고 若干의 偏差가 있으나 大體로 아래의 몇가지 重要한 概念을 內包하였다<sup>24)</sup>.

첫째로 <自然法>思想이다. 啓蒙思想은 超自然의인 것에 反하여 <自然的>인 것을, 神學에 反하여 科學을, 宗教의 信仰에 反하여 物質主義를 強調하였고 全宇宙는 必然의인 <自然法>에 依하여支配되고 있다는 假定을 內包하였다. 自然法(Jus Naturals, Naturrecht)은 一般的으로는 人間의 自然(本性)에 根據하는 法으로서 主로 歷史의in 實定法에 對立하는 말이다. 自然法則은 다만 存在의 法인데 反하여 自然法은 規範의 뜻을 가지며 理性的·倫理的意義도 包含된다. 歷史的으로는 自然法은 自然의 概念의 內容에 따라 變遷하였는데, 元來 斯托아學派로 부터 由來하였다. 그들은 人間의 自然과 理性과를 區別하여, 理性은 宇宙의理性에 基礎한다는 觀念으로 부터 自然法은 모든 個人에게 同一하다고 看做함으로써 人類主義·世界主義를 志向하였다. 中世의 스콜라哲學에서는 人間의 自然과 더부터 神으로부터 賦與된 自然法이라고 看做되었으나 啓蒙時代에 와서는 새로운 意味로 解釋되었다. 即 自然法은 人間의 自然(本性)에 基礎한 法으로서 Grotius에 依하면 <神에 依하여서도 變更될 수 없다>고 看做되었다. 自然法이 近世 以前까지는 人間의 마음속에는 날 때부터 規範으로 되어야 할 道德의 教理로서, 있어야 할 法律의 理想이 있었던 것이다, 啓蒙哲學者에 依하여 自然法은 <있어야 할 法律>로 부터 <있었던 法律>로 看做되었다. 自然狀態에 있어서 人間은 自由·平等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이리하여 自由·平等은 天賦의 人權으로서 神聖不可侵의 聖壇위에 奉安되었다. 이리하여 蒼어버린 人權의

24) Cf. History of Europe, ed., by C. Hayes, M. W. Baldwin, C. W. Cole, N. Y. 4th. 1953 pp. 657~658.  
ch. 39.

恢復은 現實의 實定法에 違背될지라도 自然法의 이름 밑에 肯定되었다. 이리하여 自然法學說은當時의 <舊制度>(Ancient Régime)에 對한 反抗의 根據로 되었다.

둘째로 機械論의 <自然>이란 概念이다. <自然>(外界)은 巨大한 뉴톤의in 世界機械의一部로 看做되었다. <自然的>인 것은 善이며 干涉하지 않고 放任하면 제스스로 善하게 움지긴다. 神은 自然을 創造하였으나 一旦 創造한 然後에는 直接干擾하지 않고 다만 觀覽할 뿐이다. 神은 그가 創造한 가장 高貴한 作品인 人間에게 <超自然的賞罰>(Supernatural Rewards and Punishment)을 하지 않는 <全能의 時計師><sup>25)</sup>에 不過하다. 人間은 干涉받아서는 아니되며 自然에 拒逆하여서도 아니된다. 人間의 法律은 制定된 것이 아니고 神의 表現으로서 看做되었다.

셋째로 人間의 <理性>이라는 概念이다. 人間은 理性에 依해서 마치 뉴톤이 萬有引力法則을 發見해 낸 것처럼 人間性 内에 內在하는 自然法를 發見할 수 있으며 自然의 營爲를 理性에 依하여 發見·理解할 수 있다. 人間은 오직 理性만을 믿고 行할 수 있는 勇氣를 가져야 한다. 理性的인 것은 善이요, 不合理한 것 或은 單純히 傳統的인 것은 惡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넷째로 人間의 <進步>라는 概念인데 萬若에 人間이 理性에 따라 自然法을 遵守하면 人類는 그 完成을 向하여 直線的으로 進步할 것이라는 樂天的見解를 內包하였다.

그런데 啓蒙思想의 核心을 이루는 가장 根本的概念은 自然과 自然權의 基礎에 立脚한 新로운 <個人>이라는 概念이었다<sup>26)</sup>. 近代의 네셔널리즘이 個人과 集團或은 國家에 對한 關係에서 成立되었음으로 이 新로운 個人觀에 對하여 좀 더 檢討하여 볼 必要가 있다.

이 新로운 <個人>이란 觀念은 古代의 아테네나 中世의 그것과는 다른 個人이었다. 그것은 古典主義의 合理主義와 基督教或은 스토이즘의 普遍的人類主義와가 融合된 個人觀이었다. 이 新로운 個人이 自律的個人임을 R. Niebuhr는 指摘하고 있으나<sup>27)</sup> 自律性以外에 그 個人은 尊嚴性과 普遍的 理性이라는 觀念을 內包하였다. <個人은 神이 賦與한 靈魂을 갖는 까닭에 그 道德的價值에 있어서 平等한 實體일 뿐만 아니라 神에서 緣由한 理性를 가지며 그 理性에 依해서 情慾과感情을 抑制하고 潛在的 理性的인 普遍秩序를 具顯한다고 思料되었다. 中世紀가 理性에 土台를 둔 信仰의 世紀라면 近世는 信仰에 立腳한 理性의 時代라고 할 것이다><sup>28)</sup>고 A. N. Whitehead는 指摘한다. 또 이 個人에게는 權利와 義務라는 概念이 添加됨으로써 結局에는 普遍的인 人類社會라는 理想을 志向하게 됨은 特히 注意를 要한다. <.....理性의 自然法乃至 神法으로서 承認

25) J. H. Hallowell, ibid, pp. 45—46.

26) C. Hayes, Contemporary Europe Since 1870, Macmillan, N. Y. Vol. II 1939.

27)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1941), Vol I, p. 61

<프로테스탄트가 基督教內에서 個性의 觀念을決定的으로 高揚시켰다면 르네상스는 自律的個人이라는 觀念과 現實의 賦된 搖籃이라 하겠다. 外見上 르네상스의 想想은 古典主義의 復活이며 非基督教의 觀念과 現實의 賦된 搖籃이라 하겠다. 事實上 르네상스의 想想은 古典主義의 權威를 基督教의 權威에 對決하는 것이거나 또는 그것을 修正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事實上 古典思想은 르네상스에서 나마난 바 個人에 對한 熱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事實上 르네상스는 이 個人的 기독교의 土壤에서만 자라날 수가 있었던 그 個人的 觀念을 利用한데 不過하다. 르네상스는 이 個人的 觀念을 古典的인 合理主義의 土壤에 移植함으로써 古典主義나 基督教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個人的 自律性이라는 新로운 觀念을 만들어냈다>

28) A. 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1925. p. 83.

되어야 한다는事實로 부터個人이主張하는權利와個人이承認하는義務가說明된다. 그리고이事實은結局에는道德的原則과 바로同一한法制度의妥當根據를만들어준다. 그리고結局에가서는모든人類의單一組織體와單一社會의理想을提起하여준다><sup>29)</sup>. 要컨대이새로운個人은<各個人속에內在한道德的價值,各個人의精神的平等性·人格의尊嚴性·個人意志의自律性·人間의本質的인合理性·人間의創造的能力의是認><sup>31)</sup>等의諸觀念을內包한不可分의人間(Individual Human beings)임과同時에普遍的人類(Humanity)에의理念을志向하는個人이었다.

이리한個人主義에立脚하였던啓蒙思想가들의個人과國家와의關係에對한根本的態度가如何하였던가는自明하다. 即 그들은最高의價值와目的은個人의完成에있지國家權力의強化나그榮光에 있다고보지 않았음은當然하였다. 그들에게는國家의存在理由는個人의實現을爲하여必要한存在였지目的 그自體는아니었다. 그들에게自由란理性과自然權을갖는不可分의인人間(個人)의自由이며普遍的人類의自由를意味하였지, 어느特殊한集團의自由——血緣·地緣·歷史的傳統·神話等의非合理主義위에成立한民族共同體(Volksgemeinshaft)라는有機體의全體의自由를意味하지않았던것이다(이리한有機體의全體內의個人은全體의組織內에織入된一個細胞로化하고마는것이다). 要컨대 Rousseau以前의大部分의啓蒙思想가들은國家를<各個人의힘들의自由스런相互作用을保護하기위한外殼(Shell)><sup>31)</sup>에不過하다고看做하였던것이다.

이個人主義에立脚한英·美의네셔널리즘에關하여서는既論한바있거나와프랑스啓蒙主義의性格은Locke의經驗論과Newton의機械論의宇宙에立脚하면서도英國보다더強力하게表現되었다. 即 Locke의經驗論은感覺論으로, Newton의機械論의宇宙觀은徹底한唯物論으로, 理神論은無神論으로發展하여갔다. 이리한兆朕은이미이時代의代表의啓蒙思想의한사람이었던Voltaire의祖國觀에서엿보인다. 그는그의哲學辭典에서그의祖國觀을아래와같이披瀝하고있다. <나와같이共同利益을모으고자田畠과家屋을所有하는者가있을때나는그의蓄積에發言權을갖는다. 나는全體의共同體의主權의一部分을차지한다. 이것이即祖國이다>또<恒常共和國은臣民이그의祖國에對하는것보다더그의祖國에愛着을갖게한다. 왜냐하면 사람은自己財產을그의支配者の財產보다더사랑하기때문이다><sup>32)</sup>. 그러나Voltaire와같이多少의見解差가있었으나大體로프랑스啓蒙哲學者들도個人主義——그것이基督教의이전或은合理主義의이전問에——의基本精神에立脚하였다. 따라서그들도어떤特殊한民族國家를民族意識으로써排他的으로사랑하는것이아니라人類愛를志向하여<우리의사랑은人類全體를抱擁하여야한다>는人道主義的·世界主義的性格이強하였다는共通의이었다. 이러한

29) Ernst Troeltsch, The Ideas of Natural Law and Humanity in World Politics, in Otto Gierke, Natural Law and the theory of Society, 1,500 to 18,00 (trans. by E. Barker, 1934)p. 205.

30) J. H. Hallowell, ibid, p. 32.

31) H. Kohn,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p. 23.

32) H.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1944. p. 219

傾向은 프랑스啓蒙思想家의 代表的人物인 <法의 精神>의 著者 Montesquieu의 아래의 말 속에 如實히 나타나 있다. <萬若에 내가 우리나라에 有益하나 他國을 害치는 어떠한 일을 안다면 나는 우리 君主에게 그것을 提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프랑스人이 되기 前에 한 人間이며 내가 프랑스人이 된것은 다만 偶然한 機會에 不過한데, 한 人間이라는 것은 必然의 依 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祖國에게는 有利하나 유럽에 害로우며, 유럽에는 有利하나 人類에게는 害로운 어떤 일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罪惡으로 생간한다><sup>33)</sup>. 이러한 人道主義的・世界主義的 傾向은 後에 나치즘을 誕生하였던 獨逸에서 오히려 더 強하였음은 實로 歷史의 아이로니가 아닐수 없다. Goethe, Schiller는 勿論, Leibniz, Sonnenfels, Kant, Lessing, 및 Herder에게서 까지도 當時의 啓蒙的世界主義의 強力한 傾向을 엿볼 수 있다<sup>34)</sup>. 個人的 自由, 人間의 完成을 目標로 하는 普遍的人間(ein allgemeiner Mensch)을 追求하는 그들에게는 人類에의 사랑이 있을 뿐이지 民族的境界에는 冷淡하였다. <重要한 어떤 것이 된다는 條件이라면 나는 그것이 獨逸에서 되던지 프랑스에서 되던지 無關心하다. 왜냐하면 나는 人類의 幸福을 希求하기 때문이다> (Leidniz). 짚은 Goethe도 1772年에 <우리네 財產을 任意로 하고 우리를 養育하는 田野와 投宿할 집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우리는 祖國을 갖지 않는가? 우리는 각나라에 이러한 곳을 無數히 갖지 않는가? 그리고 이와같은 制限內에서 그들은 幸福하게 살지 않는가?><sup>35)</sup>라고 말한바 있다. 그의 <Faust>는 一層 더 높은 生命의 目標를 向하여 人間性 內에 最高의 價值가 있음을 信念하고 努力하는 人間像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啓蒙的 個人主義와 世界主義에 批判을 加하고 <集團個性>(Collective Personality)이라는 새로운 要素를 프랑스 네셔널리즘에 加味함으로써 從前의 네셔널리즘과는 다른 性格과 方向을 提供하여 준 人物이 Rousseau였다.

## 2. Rousseau의 네셔널리즘의 理念

### (1) 네셔널리즘理念發展史上의 Rousseau의 位置

L·Snyder는 《프랑스·네셔널리즘은 1789年에 갑작히勃發하였다.近代史上의偉大한 里程碑의 하나인 프랑스大革命에로의 知的路程은 <理性의 時代>인 啓蒙思想속에서 準備되었다. Decartes, Montesquieu, Rousseau, Voltaire, 그리고 그外의 사람들이 그 背景에 많이 寄與하였다》<sup>36)</sup>고 말하고 있거니와 그 中에도 特히 Rousseau는 近代네셔널리즘의 歷史上 重要한 位置를 占有한다. 이에 關하여 斯界의 權威의 하나인 英國王立國際問題研究所의 한 報告書도 <네셔널리즘理念의 發展上에 있어서 Rousseau의 思想의 重要性은 아무리 誇張하여도 不足하다. … Rousseau가 준 唯一한 理論的上台위에서만 19世紀네셔널리즘은 構築될 수가 있었다><sup>37)</sup>고 指摘하

33) 崔文換, 民族主義의 展開過程, 1959博英社 pp115—116

34) 崔文換上揭書 pp148—167

35) 上揭書p. 151.

36) L.Snyder, The Dynamics of Nationalism, p.104

37) Nationalism, A Report by A Study Group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p.27.

고 있다. 그러나 그는 19C 네셔널리즘에 깊은 影響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20C의 네셔널리즘에도 間接的이기는 하나 깊은 影響을 주었다. 왜냐하면 20C의 全體主義的네셔널리즘은 元來 프랑스 네셔널리즘의 刺戟을 받아 發生하였고 (비록 그 思想的基盤은 달랐으나), 또 18C와 19C, 19C와 20C는 各己 特徵이 있으나 各己 斷切된 時代가 아니기 때문이다. C·Hayes는 20C의 特徵으로서 ① 貴族 및 中產階級으로 부터 大衆에로의 社會的·政治的主導役割의 轉移 ② 自由主義國家의 <福祉的> 혹은 <社會主義的>國家에로의 代贊 및 새로운 型態의 大衆獨裁(Plebian Dictatorship)의 出現 ③ 機械的發明의 加速化 및 그것의 娛樂·宣傳 및 戰爭에의 適用 ④ 民族主義의 帝國主義의 全體主義的世界大戰等을 指摘한다<sup>38)</sup>. 그리고 그는 <……今世紀의 이 모든 特徵은 그起源을 19C와 18C의 諸發展 속에 邇及하여 찾을수 있다. 20C는 19C 또는 17C에로 絶斷된 世紀가 아니다. 20C로 하여금 하나의 새로운 時代로 만든 것은 18C로부터 19C에로의 發展의 擴張·癒着 및 그 窮局的 結果있음에 不適하다><sup>39)</sup>고 指摘한다. 이 點에 있어 Rousseau는 네셔널리즘學說上 가장 重要한 人物이나 그 뿐만 아니다. 그는 1個의 豫言者的인 文明批判者였고, 啓蒙時代의 個人과 國家에 對한 價值觀의 變革過程이 그에 依해서 遂行되었다는 點에서 그는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Rousseau의 近代政治思想 [發展上의 重要性과 影響力은 아무리 誇張하여도 지나칠수가 없다. 어느 意味에서 그는 Nietzsche가 19C後半에 占한 것과 비슷한 地位를 18C後半에서 占하고 있다. 兩者는 다 그 時代의 文明批判者이며, 그것을 出發點으로 하여 樂天的인 同時代人들의 눈에는 確實한 基礎위에서 安定된 進步를 하고 있다고 看做된 文明全般의 問題를 論하고 있다. 兩者는 다 그 關心과 著述의 多才性에 있어서 根本의 으로는 道德的인 哲人이며, 또 어느편이냐하면 學者型이라기 보다는 藝術家的, 豫言者的인 性格의 人物이었다. ……그들의 思想이나 作品中の 大量은 要素는 오히려 反對였음에도 不拘하고 Rousseau는 19C의 離譯크라티크한(民衆的)네셔널리즘에 基礎를 주는데 貢獻하였고 Nietzsche는 파시스트的인 네셔널리즘을 爲하여 똑같은 役割을 하였다><sup>40)</sup> 이렇게 Rousseau를 豫言者的인 文明批判者로서, 價值觀의 變革者로서 把握할 때, 그의 네셔널리즘의 理念 그 自體도 實은 그의 文明批判이나 價值觀의 歸結로서 形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筆者は 그의 네셔널리즘 一般에 關한 詳論을 避하고, 그의 發想의 源泉이 되었던 問題, 그의 思惟課題가 무엇이었던가로 부터 出發하여 그 속에 潛在한 非合理主義的·全體主義的 要素를 檢討하기로 한다.

## (2) Rousseau의 思惟課題

그의 思惟課題가 무엇이었던가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當時의 프랑스 啓蒙思想이 内包하고 있었던 矛盾과 그에 따른 프랑스 思想界의 混亂에 關하여 먼저 言及하기로 한다.

自由主義의 起源은 아득히 古代그리아스에 까지 邇及하여 追跡할 수 있겠으나 一脈의 連鎖을

38) Hayes, Contemporary Europe since 1870, N.Y. 1939. p. 187

39) Hayes. Ibid. p. 187. part II.

40) H.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p. 238.

갖는 自由主義의 端初는 宗教改革에 求할수 있을 것이다. 17C 英國清教徒革命에서, 政治的・經濟的自由主義運動이 信仰上自由主義運動으로 부터 出發하였다 함은 既述한 바 있거니와, 그 以前까지의 自由는 各己 分離된 것으로 要求되어 왔고 모든 自由를 組織的으로 整理하여 하나의 體系있는 世界觀으로써 肢解된 것은 아니었다. 이 課業을 完遂한 것이 17・8C의 啓蒙思想家의 偉大한 業績이었다.

그리나 啓蒙思想은 그 自身 矛盾된 두 개의 思想을 內包하고 있었다. 即 認識論에 있어서는 經驗論(或은 感覺論), 人間觀에 있어서는 快樂主義(Hedonism)를 採擇하면서도 道德哲學과 社會哲學에 있어서는 自然法學說에 基礎하고 있었다. 單純히 自然法則과는 달리 人間의 自然(本性)에 根據하는 規範으로서의 理性的・倫理的인 義務의 法인 自然法學說은 感覺論과 快樂主義에 나타난 바 經驗主義와 함께 啓蒙思想속에 雜然히 混在하고 있었다. 그러나 自然法學說과 經驗主義와는 그 自體가 調和될 수 없는 矛盾된 概念이다. 왜냐하면 前者は 先天的인 理性을 認定하나 後者は 이를 否定한다. 自然法學說에서의 自然法은 當爲의 法인 <있어야 할 法>이지 現實의 <있는 法>인 存在의 法은 아니며, 經驗主義의 自然法은 現在에 宇宙를 支配하고 있는 <法則>이지 支配하여야 할 <規範>은 아니기 때문이다. 特히 프랑스에서는 啓蒙思想속에 混在한 이 經驗論은 自然法學說에 立脚한 人間觀과 社會觀을 누르고 徹底化하여 感覺論・唯物論・快樂主義으로 發展하였던 故로, 그 만큼 더 啓蒙哲學의 矛盾을 <道德的인 哲人>이었던 Rousseau는 切感하였다 것이다. 啓蒙思想은 個人主義에 立脚하여 個人에 必要한 限에서만 國家權力의 存在意義를 認定하려고 했고 英國에서는 國家權力を 人權아래에 制限하는데 一旦은 成功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權威主義의・絕對主義的傳統이 너무도 强하였던 故로 그곳의 個人主義는 不必要한 點에 까지 國家에 對한 對立과 反撥을 強調하였다. 또 그 個人主義는 機械論의인 個人主義이었다. 그런 故로 原子의인 個人主義 그것 만으로서는 自身을 確保할 수 없을 뿐더러 設使 國家의 存在를 承認한다 하여도 個人과 國家間의 關聯을 充分히 說明할 수 없다는 弱點을 가지고 있었다. 原子的・機械的・感性的 個人的 強調는 社會의 無秩序가 아니면 樂天的 無規定의in 世界主義의 抽象으로 雾散하여 버린다고 Rousseau는 생각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現實의 으로 個人的 自由・財產・幸福을 主張하는 啓蒙思想家에 對抗하는 新로운 保守傳統主義者들이 擡頭하였다. 1770年 L. de Beauvray에 依한 社會愛國辭典(Dictionnaire social et patriotique)의 發刊은 그 一例이다. 이들 保守勢力은 個人的 自由는 放縱이며 平等은 驕慢이라 하여 傳統的君主制를 擁護함으로써 個人主義에 重大한 威脅을 주었다. 이리하여 自由와 權威, 個人과 國家, 感覺論乃至 快樂主義와 自然法學說의 道德哲學 및 社會哲學과의 對立은 프랑스의 社會와 思想을 不安과 無秩序의 混亂 속으로 빠뜨려 놓았다. Rousseau의 思想은 當時의 이리한 危機狀況에서 이를 克服하기 為하여 發想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의 思惟課題는 무엇이었던가?

自由로운 個性의 解放을 主張하는 啓蒙主義時代 或은 <理性의 時代>에 살았던 Rousseau는 個人主義에 立脚하고 또 어느 意味에서는 個人主義를 擁護하였음을 分明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個性의 自由를 抑壓하고 있던 當時의 舊制度의 没落을 希望하고 그 必要性을 洞察하고 있다. 그는 Emile에서 <諸君은 社會의 現在秩序가 許多한 革命을 免치 못한다는 것을 考慮하지도 않고 이 秩序를 믿고 있다. …우리는 危機의 狀態, 革命의 世紀에 接近하고 있다. 나는 유럽의 모든 大君主國이 오래 存續하기가 不可能하다고 생각한다>고 時代의 危機를 洞察하고 있다. 그리고 이 危機는 國家의 強力으로써는 克服할 수 없다고 본다. 그에 依하면 Th·Hobbes가 構想하는 類의 Leviathan은 自由로운 人間에 依한 結合(Association)은 無고 다만 國家의 强制에 隸屬된 奴隸가 있는 集塊(Agrégation)가 있을 뿐이다. 그 곳에는 公共社, <政治體>(Corps politique)도 無다. 設使 強力한 一君主의 權力支配가 一時的으로 成功한다 하여도 그의 成功은 다만 一私人의 그것에 不遇하며 그가 追求하는 것은 私的利益에 不遇하다. 人民과 君主와를 連結하는 共同的紐帶가 無는 國家는 마침내는 崩壞되지 않을 수 없다. 君主나 特權層의 特殊利益에 結合된 國家는 永續性이 無고 다만 偶然의으로 存續할 뿐이다. 國家가 堅固하고 恒久的發展을 하려면 共同利益에 立脚하여야 한다. <社會의 結合을 形成하는 것은 이의한 特殊利益안에 共通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萬若 모든 利益안에 一致되는 것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社會도 存續할 수 없다. 그런데 社會는 오로지 이의한 共同利益위에 統治되어야 한다><sup>(41)</sup>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렇게 그는 國家의 絶對權力を 反對함과 同時에 當時의 啓蒙의 유럽의 文明社會에 있어서 各國의 宮廷이나 사통을 支配하고 있었던 코스모포리타니즘(世界主義)에도 反對하였다. <저들 世界主義者들은 人類를 사랑하는 까닭에 自己나라도 사랑한다고 理由를 부치고 있으나, 그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特權을 享受하기 為하여 全世界를 사랑한다고 廣言하고 있는 것이다>(社會契約論), 또 <저들 世界主義者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自己 이웃에게 다하여야 할 義務를 履行하려고는 않고 그것을 漏리 書籍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自己 이웃을 사랑하여야 할 義務로 부터 解放되기 為하여 鞭撻人을 사랑하는 哲學者도 있다>(Emile).

이렇게 Rousseau는 國家의 絶對權力を 勿論, 人類主義·世界主義에도 反對하는 同時에 享樂主義(Hedonistic), 原子的個人主義에도 反對하였다. 個人的 慾意的 放縱과 感性的欲望의 自然的 自由는 道德的·社會的 自由로 收斂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 點에 있어서 그는 個人主義에 立脚하면서도, 또 <社會契約論>에서 個人主義를 擁護하면서도 自己도 모르게 個人主義를 超剋하는 立場에 스고 만았던 것이다.

### (3) Rousseau의 二重性(其一)

그의 思惟課題는 個人的自由와 個人的 現實的基盤인 社會的權威라는 두 相反·對立하는 權威를 個人的自由에 力點을 두면서도 어떻게 矛盾 없이 調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思想적으로는 Locke의 理論을 重視하면서도 Hobbes의 無視할 수 없는 理論과 어떻게 無理없이 調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即 <各個人의 共同의 힘으로써 團體 各員의 身體財產을 保護하여 各成員을 全體에 結合시키면서도 各員은 自己 以外에 服從치 않고, 또 結合後에도 그

41) C. E. Vaughan, The Political Writings of J. J. Rousseau Vol II. pp. 39-40

以前과 똑같이 自由로울 수 있도록 하는 結合形式<sup>(42)</sup>을 發見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對한 解答이 <一般意志>(volonté générale)이었는데, <一般意志>에 依據한 市民國家야말로 本能의 인 個人을 真正한 自由으로 升華시킨다는 것이다. <自然狀態로 부터 市民國家에의 變化야 만로 人間에게 참으로 顯著한 變化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은 人間의 行爲에 있어서 正義가 本能에 代贊되며 그에게 이제까지 缺如되었던 道德性이 그의 行爲에 賦與되기 때문이다. ……人間이 市民國家에서 얻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 以上으로 道德의自由를 添加하여 할 것이다. 道德의自由란 오로지 이것만이 人間으로 하여금 真正으로 自己自身의 支配者로 만드는 것이다. 單純히 貪慾의 衝動은 奴隸이다. 그러나 自己가 自己自身에게 規定하는 法律에 服從한다는 것이야 말로 自由라고 부르는 것이다<sup>(43)</sup>. 그런데 그가 말하는 <法律>이란 <個人이 自身의 權利를 留保없이 讓渡함으로써 이루워지는 一般意志><sup>(44)</sup>의 表現이다. 그러므로 一般意志란 各個人의 特別意志와는 다르며 또 特別意志의 單純한 總和인 全體意志와도 달라 그것은 恒常 正當하고 無誤謬의이며 恒常 公共의 福利를 念願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그가 個個人의 主觀的인 利益과 意思를 尊重하는 同時に, 이 主意의인 利益에 對하여 正義와 道德性이라는 客觀的인 制限을 承認할 것을 主張하였음을 높히 評價되어 마땅하다. 그는 人間에게 正義와 道德性의 빛나는 餘地를 認定하였던 點에서 從來의 快樂主義의 · 利己의 個人主義를 옳게 바로잡아 주었고 그럼으로써 從來의 利己的人間觀의 變革을企圖하였다. 이 人間觀은 後에 Kant에 깊은 影響을 주어 그의 道德哲學의 基本이 되었다. Kant는 <Rousseau는 나를 옳게 바로 잡아 주었다. 나는 그로 부터 人間을 尊重할 것을 배웠다>고 告白하고 있다. 또 Rousseau는 國家의 意志인 法律에 服從할수록 더욱더 自由로워 진다는 點에 있어서 從來와는 다른 自由의 意義를 發見하였으며, 個個人의 自由는 오로지 國家權力의 制限乃至는 否定에만 있다고 생각한 그 時代의 個人主義를 解脫하고 個人과 國家間의 調和를企圖하였다는 點에서 높히 評價 받을 만하다.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 全體主義의 可能성이 潛在하여 있다.

#### (4) Rousseau 의 二重性(其二)

지금까지 筆者가 Rousseau에 關하여 論述한 바는 그의 思想속에 潛在하는 二重性 中에 主로 그 肯定的인 一面, 即 啓蒙思想의 合理主義의 · 個人主義의인 一面이었다. 그러나 그의 思想中에서 非合理主義의 · 全體主義의인 他面이 混在하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當時의 프랑스社會의 快樂의인 利己生活, 公共生活에 對한 關心의 缺如, 社會的福祉에 對한 責任感의 缺如를 目睹한 Rousseau는 單純한 理論이 아닌 精神의 改革을 爲하여 보다 더 崇高한 情緒를 爲하여, 보다 더 素朴하고 獻身의인 生活을 爲하여 새로운 意味의 共同體 思想을 構想了하였다. 그것이 바로 <Patrie>이었다. 이 Patrie에의 愛情과 그것에 對한 거의 宗教的獻身

42) C·E. Vaughan, ibid. p. 32

43) opcit. II p. 36

44) Social Contract, Chap. II.

이 Rousseau의 네셔널리즘의 核心을 形成하고 있다<sup>45)</sup>. 热烈한 Democrat인 同時에 Patriot였던 그는 貴族을 國民(Nation)의 核心으로 부터 排除하고 一般庶民(People)을 國民과 同一體로 看做하였다. 그에게는 國民과 祖國과 一般意志와는 同義語이었다. 그리고 그의 네셔널리즘란 다른 아님 Patriotism이었다. 그의 Patriotism은 社會의 各成員을 情緒로써 鼓舞케 하며 宗教의 인 獻身을 強要하는 感動이었다. 《Rousseau는 이것(네셔널리즘)을 Patriotism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從來와는 다른 Patriotism이었다. 그것은 單純한 地域的인 鄉土愛(Heimatliebe)는 아니었다. Rousseau의 理念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낯익은 環境이나 慣習에 對하여 품고 있었던 感情이나 忠誠心을 이제는 보다 더 抽象的인 實體 즉 政治的 共同體에로 移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過程에서 그 感情이나 忠誠心은 擴張되고 深化되어 市民의 全生活에 作用할 수 있는, 그의 利害關係나 利己主義(Egoism)에도 呼訴할 수 있음과 同時에 그의感情이나 道德的 感覺에도 呼訴할 수 있는 情熱的인 確信으로 轉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다><sup>46)</sup>. 要컨대 그의 Patriotism은 人類史에 悠久히 存續하여 온 저 鄉土에의 愛着心을 보다 더 高次的인 第2次的集團 즉 Patrie에의 愛情으로 高揚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네셔널리즘은 種族主義(Tribalism)나 鄉土主義(Localism)와 같은 偏狹한 自然的感情을 峻拒함과 同時에 Patrie를 超越한 世界社會 즉 世界主義에의 志向도 峻拒하는 것이다. 結局 그는 個人과 世界(人類)의 中間에 堅固한 Patrie를 想定하였는데 Patrie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Patrie를 形成하는 것은 城壁도 아니며 人間도 아니다. 祖國은 法律이며 道德이며 慣習이며 政府이며, 이 모든 것으로 부터 結果한 存在樣式이다. Patrie는 그 <國民>(Nation)의 成員에 對한 關係속에 存在한다. 이 關係가 變質하여 無로 될 때 Patrie는 消滅하고 만다》<sup>47)</sup>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Patrie에 對한 거의 宗教的인 獻身을 個人에게 強調하게 된다. 아래 引用文은 그가 코르시카島의 憲法起草文 中 코르시카人們의 祖國愛를 鼓舞키 為하여 쓴것인데 그들에 다음과 같이 盟誓케 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에 依하여 나는 身體·財產·意志 또는 나의 힘을 쿨시카國家에 結合할 것을 神聖하고 不變히 誓證한다. 나는 國家를 為하여 살며 國家를 為하여 죽으며 國家의 法을 遵守하며 法에 一致되는 所有 主張과 合法的인 裁判官에 服從할 것을 盟誓한다. 神은 우리의 生活을 保護하시고 우리의 精神을 守護하신다. 自由 正義·쿨시카共和國萬歲 아멘>(이 盟誓는 그 後 프랑스大革命 時에 <祖國을 為하여 죽는다> (mort pour la patrie)라는 愛國의 热狂속에 再生되었다). 또 Rousseau는 모든 個人을 오리지 그의 祖國에 對한 忠誠心 밖에 모르는 <愛國者>로 鑄造하기 為한 國民教育을 強調하였다. Rousseau는 폴란드의 某伯爵의 要請에 依하여 <波蘭政治에 關한 論文> (Considération sur la gouvernement de Pologne, et sur la Reformation projeté en April 1772)을 썼다. 이 論文은 意識的이고 計算된 네셔널리즘의 最初의 體系的理論이었다. 이 論文에서 그는 國民皆兵制度를

45) C. Hayes, Nationalism, A Religion, 1960, N. Y. Chp. 12.

46)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 Report. p 28

47) L. Snyder, The Dynamics of Nationalism, p. 106

이미 唱導하였고 <國民的制度는……人民에게 根絕할 수 없는 慣習에 立脚한 祖國에 對한 热烈한 사랑을 鼓吹한다><sup>48)</sup>고 指摘하였다. 여기서 그는 特히 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하여 市民은 <母親의 것을 먹을때 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國民的思想속에서만 教育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教育은 사람들의 心魂에 國民的 形態를 주도록 하며 그들의 愛好·熱情·必然에 依하여 愛國的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의 意思와 趣味를 指導하여야 한다. 眼穴이 열리는 幼兒가 祖國을 보도록 하여 죽을때까지 그것밖에 아무것도 봄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真正한 共和國民은 母親의 것을 빠는 瞬間에 祖國에 對한 사랑 즉 法律과 自由에 對한 사랑을 吸收한다><sup>49)</sup>. 이렇게 Rousseau는 모든 個人은 國民義務教育을 通하여 祖國愛로써 鑄造되어야 할 것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고 밀었다. 이 論文은 그후 자코뱅 네셔널리즘의 指針이 되었다.

이에 이르러 啓蒙主義時代의 <不可分的人間>으로서의 個人은, <祖國>, <道德的共同體> (Corp morale Collectif), <共同我>(Moi Commun), <一般意志>라고 하는 集團個性(Collective Personality)으로 化하고 말았다. 또 自由는 個性의 自由로부터 集團的自由를 意味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個人的 自由는 共同我인 <祖國>의 自由와 不可分的으로 結付되지 않으면 안된다. 集團個性인 <祖國>以外의 一切의 個人的自由는 空虛한 名稱에 不過하며 國家目的以外의 一切의 秩序는 有罪로 斷定된다. 오로지 祖國에 對한 獻身만으로써 個人은 自由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 愛國的인 感激心만이 人間을 그自身 以上으로 向上시키는 것이다. 그것없이는 自由도 空虛한 名稱에 不過하며 立法도 夢想에 不過한 것이다><sup>50)</sup>. <……그리하여 人間의 性質이 變更되어 이제 까지 孤立無援하던 個人은 國家의 큰 全體의 一員이 되어 國家의 生命과 存在의 運命을 품소 體得케 한다><sup>51)</sup> <正義와 真理, 이것이 人間의 第一義務이다. 人道와 祖國 이것이 第一愛情이다. 이 秩序를 變更시키는 特殊한 方案의 모든 信念은 有罪이다><sup>52)</sup>. 上掲한 Rousseau의 不過 몇 句의 말속에서 만토 啓蒙思想의 個人主義와 함께 이와는 全的으로 相反되는 權威主義的·非合理主義的·全體主義의 要素와가 混在하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Rousseau 내에 混在하는 二重性은 同時에 적어도 <第三期>以後의 네셔널리즘 그 自體가 內包하고 있는 二重性——<博愛的人類主義>와 <國家的 또는 民族的自己主張과 戰爭과의 殘忍한擁護者>로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Rousseau의 真意가 어디까지나 18C의 一般的的信念 위에 立脚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는 個人主義를 超越함으로써 結果的으로는 全體主義에의 길을 닦아 주었던 것이다. 이 點을 더 明白하게하기 為해서는 그의 Patriotism 및 그의 國家哲學의 核心인 <一般意志>를 分析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 (5) 그의 Patriotism 와 <一般意志>의 分析

48) C. E. Vaughan, Ibid, Vol I , p. 431.

49) L. Snyder, ibid, pp. 107—8.

50) C. E. Vaughan, ibid, Vol I, Contract Social p. 492

51) ibid. p51.

52) Opt cit. I. p.491

먼저, 그의 Patriotism——祖國(Patrie) 即 恒常 正當하고 無誤謬的인 公共的善인 <道德的共同體>와 <共同我>에 對한 거의 宗教的인 獻身——은 그것의 窮極的인 形態를 우리는 St. Just의 말 속에서 發見할 수 있다. 即 Rousseau의 弟子 Robespierre의 心腹으로서 <恐怖政治의 大天使>라고 불리운 热烈한 patriot 였던 St. Just는 <偉大한 犯罪치고 德(Virtue)과 비슷하지 않는 것은 없다……祖國愛 속에는 무엇인가 무서운 것이 含蓄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公共의 利益을 爲하여 懈憊心도 恐怖心도 人間愛의 마음도 없이 犥牲할 수 있을 程度로 排他的인 것이다. ……全體를 爲한 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恒常 무서운 어떤 것이다>고 告白하고 있다. 이 St. Just의 말은 公共 即 Patrie의 大義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無慈悲한 暴力도 正當化될 수 있다는 思想을 明確히 表明하고 있다. 이러한 暴力의 正當化는 마침내 暴力崇拜에로 發展되어 20C 思潮의 暗流를 形成하였다<sup>53)</sup>. 그런데 이 무서운思想은 비록 無意識의이었으나 Rousseau의 Patriotism 속에 潛在하고 있었던 저 狂的인 毒素의 歷史的展開의 結果였던 것이다.

Rousseau가 생각하는 것 처럼, Patrie는 <一般意志>의 主體로서 恒常 正當하고 無誤謬의 인 實體이다라는 論法을 徹底化하면 Patrie는 批判되어야 할 對象이 아니고 正義의 權化이다라는 結論에 到達하게 된다. 이 點에 있어 그는 個人과 國家와의 調和라는 當初의 目的을 逸脫하여 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의 先驅者로 되었다. 그의 思想을 더욱 發展시킨 人物이 Hegel였다. Hegel은 國家는 道德的理理念의 實現이며, 國家는 그 自體가 理性的이며, 또 國家는 그 自體가 終局의 目的으로서 個人에 對하여 最高의 權利를 所有하며 個人的 最高의 義務는 다만 國家의 一員이 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sup>54)</sup>.

다음으로, Rousseau의 네셔널리즘의 核心概念인 一般意志를 Carl Schmitt는 아래와 같이 明快하게 分析하고 있다.

<一般意志는 Rousseau의 國家哲學의 根本概念이다. 그것은 主權者的 意志이며, 國家의 一體性을 形成하는 것이다. 이러한 性質을 갖추고 있는 까닭에 그것은 모든 特殊한 個別意志와는 区別되는 概念上의 特性을 가지고 있다. 即 一般意志에 있어서는 存在하는 것과 存在하여야 할 것과가 恒常 一致하고 있다는 特性이다. 마치 神이 權力과 正義와를 한 몸에集中하여, 그 觀念으로 부터 그가 意志하는 것은 恒常 善이며 또 善한 것은 恒常 現實에 있어서 意志하는 것과 같다고 看做되는 것처럼 Rousseau에 있어서도 主權者 즉 一般意志는 그것이 實在한다는 것만으로 별씨 實在하여야 한다는 것과 一致하고 있다고 看做되는 어떤 것이었다. 一般意志는 언제나 바

53) H. Kohn, Political Ideologies of the Twentieth Century, 1666. Chp. III. pp. 32—43

54) Hegel; Philosophy of Right, pp. 258. 336. 340. 347. trans. by S. W. Dyde London; G. Bell. & Sons. 1899). pp. 244ff., 339.

또 Hegel의 Nazism에 미친 영향에 關하여서는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Colombia university press, 2nd ed. 1951. Hegel's Great Hands 項參照할 것.

르고 過誤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理性 바로 그것이며, 마치 物理的世界에 있어서 自然法則이支配하는 것과 똑같은 必然性을 가지고 理性에 依해서 決定되고 있다. 一般意志는 消滅되지 않고 變化되지 않고 純粹 바로 그것이다. 이에 反하여 特殊意志 或은 個人意志라고 불리우는 個別意志는 그것 自體로서는 零이며 無이다. 特殊한 行動, 特殊한 意志, 特殊한 利害, 모든 特殊한 關係, 모든 特殊한 힘과 特殊한 配慮는 그것 自體로서는 이 一般的인 것의 一體性과 高貴性앞에서는 無意味한 것이다><sup>55)</sup>

既述한 바와 같이 Rousseau의 思惟의 出發은 <各個人의 共同의 힘으로써 團體 各員의 身體財產을 保護하며 各成員을 全體에 結合시키면서도 各員은 自己以外에 服從하지 않고 또 結合後에도 그 以前과 똑같이 自由로울 수 있는>, 그리한 政治社會의 構想이 있다. 그리고 一般意志는 그 解答이었는데, 그것은 換言하면 個人的 利己主義와 公共의 善과의 完全한 一體化를 象徵하는 理念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가 있다. 即 그 一般意志와 個人的利害關係와의 사이에 現實的으로乖離가 있을 때 個人的 價値는 如何히 評價되느냐하는 問題이다. <이 問題는 簡潔한 兩者擇一로써 處理된다. 即 個人的인 것과 一般的인 것과一致하여 그一致의 까닭에 個人的인 것의 價値 있다고 認定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個人的인 것과 一般的인 것과一致하지 않기 때문에 個人的인 것은 零이며 無이며 惡이며 腐敗이며, 一般的으로 道德의in 或은 法의意味에 있어서 一顧의 價値도 없는 意志라고 看做되느냐. 이 兩者 中 어느 한 가지로 處理된다><sup>56)</sup> 이에 이르러 Patrie의 意志 即 一般意志의 背反者에 對한 強制의 正當化까지는 종이 한장의 差 밖에 남지 않게 된다. <一旦 墮落된 人間(即 一般意志에 背反하여 個別意志의 奴隸로 轉落된 人間)은 國家를 通하여 人間다운 狀態로 復歸시켜야 하며, 모든 自然의in 衡動은 抹殺되고 單純히 自然의in 것에 代身하여 道德的存在를 現出시켜야 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萬若에 國民의 多數者에 對하여 道德 或은 正義라고 料된 正當한 意志가 利己의in 感情의意志에 依하여 壓倒되어 있다고 看做되는 境遇에는, 少數者만이, 아니 오히려 單 한 사람 만일지라도 正當한 意志를 갖는다는 事實이 있을 수 있게 된다><sup>57)</sup>. 여기에 이르러 絶對로 誤謬가 있을 수 있는 獨裁者에게 無條件의in 服從의 合理化가 나타나 있다. <이 論理를 結論에로 徒 徹底히 밀고나가면, 德(Virtue)의 所有者 만이 政治的事項의 決定에 參與할 수 있다는 말이된다. 政治의in 敵은 道德의으로 腐敗된 者이며 無害한 存在로 轉化시켜야 할 奴隸이다. 多數者가 腐敗속에 陷入하여 있다고 料되는 境遇 道德의in 少數者는 德으로 하여금 勝利케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強力手段을行使하여도 좋다는 말로 된다. 그들이 行使하는 테리는 決코 強迫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며, 自由를喪失하고 있는 에고이스트를 그 本然의 真正한 意志에로 바로 잡아 주고 그로 하여금 市民으로서의 自覺을 갖도록 하기為한手段에 不過하다. ……그 實際의in 解決法은 自由롭지 않는 人間들의 殲滅이라는 事實에 彙着된다. 그 理論的根據은 Rousseau自身이 表明한 見

55) Carl Schmitt, Die Diktatur, dritte Afl, S. 120.

56) ibid,

57) opt cit.

解 속에 있다. 即 경우에 따라서는 人間으로 하여금 自由人이 되도록 強制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思想이 바로 그것이다><sup>58)</sup>

近代 네셔널리즘의 가장重要な 理論家인 Rousseau의 <一般意志> 속에 潛在한 이 戰慄할可能性은 實事上 프랑스大革命의 過程에서 Robespierre 等에 依해서 그대로 實踐되었던 것이다. E. Barker가 指摘했듯이 <一般意志>는 <Rousseau의 手中에서 鏡利한 兩刃의 劍으로 變하였다. 그것은 메모클라시를 擁護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Leviathan을 武裝化하는데 끝나고 말았다>고 말할 수 있다.

### 三. 프랑스大革命과 자코뱅·네셔널리즘

#### —<一般意志>의 歷史的展開—

프랑스·네셔널리즘은 Rousseau에 依해서 이미 그 basic的性格이 주어졌다고 하겠다. 따라서 마치 그의 理論 속에 二重性이 있었듯이 프랑스大革命의 進行中에誕生된 네셔널리즘 속에도 人道主義的 要素와 對立하는 權威主義的·全體主義的인 두 要素와가混在하고 있었다. 革命의 初期段階(1789~1793)에는 大體로 啓蒙思想의 個人主義的·人道主義的 理念이 强하여 아직은 네셔널리즘의 過激性을 制禦하고 있었다. 그러나 革命의 進行中 漸次로 人道主義的要素가 頗色하여 갈수록 Rousseau의 <一般意志> 속에 潛在하였던 毒素가 効力を 發揮하게 되었는데,換言하면 Rousseau思想의 具體的實踐形態가 所謂 Jacobin Nationalism이었다.

筆者は 프랑스大革命의 原來의 理念이 如何히 그와 相反된 理論과 行動으로 變質되어 갔는가를 略述하기로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Rousseau의 <一般意志>의 矛盾이 프랑스大革命의 過程에서 如何히 實踐되어 갔는가에 對한 歷史的檢證이라 하겠다.

프랑스大革命의 當初의 主要目標는 理性的自由가 統治하는 프랑스의 再生이었다. 프랑스는當時에 衰退一路를 걷고 있었다. 17C의 絶對君主下에서 한때 西歐世界에 行勢하던 프랑스의 政治的·文化的領導力은 顯著하게 衰弱하였다. 프랑스軍隊의 荣光은 빛을 잃었고 많은 領土는喪失되고 財政은 거의 破綻에 이르렀다. 經濟的·知的生活은 <舊制度>로 因하여 沈滯되었고 깊은 不安全感이 프랑스의 모든 社會에 感染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프랑스 知性人們은 名譽革命 以後의 英國을 模範으로하여 프랑스에도 <立憲的自由와 制限的政府>를 實現코자 念願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權威主義의이고 絶對主義의 傳統은 너무도 强하였던 故로 프랑스人은 自治政府와 主權者의 制限에 對한 政治的訓練 및 經驗을 거의 갖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王의 絶對主權>은 革命의 進行過程에서 <人民의 絶對主權>이라는 極端的形態로 交替되고 만았던 것이다. Rousseau의 影響을 받은 많은 프랑스 知性人們은, Rousseau가 그렸듯이 그들의 行動指針을 스파르타나 로마共和政 時에 主張된 市民的德(Civic Virtue) 속에서, 그 峻嚴한 愛國主義(Patriotism)과 尚武精神(Militarism) 속에서 發

58) op. cit.

見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共同的인 愛國的熱情과 하나로 團結된 覺醒된 國民意志(National Will)를 모든 사람들이 갖도록 要求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로 統合된 프랑스 <國民>(Nation)은 프랑스大革命의 热狂主義속에서 形成되었던 것이다. 大革命 以前까지는 프랑스 <國民>은 存在하지 않았다. 각地方마다의 固有한 慣習法·地方的經濟 및 度量衡으로 因한 地方과 都市間의 隔差, 特權的貴族의 殘存으로 因한 平民과 貴族間의 身分의 差異 等은 프랑스 <國民>의 形成을 妨害하는 要素가 되어 왔었다. 1789年6月에 <三部會>가 召集되었으나 그것은 1614年에 召集된 以來 實로 175年이란 긴 歲月이 흐른 後이었으며, 이 동안의 社會生活의 諸般條件은 너무도 많이 變化하였고 특히 프랑스人은 啓蒙思想과 Rousseau의 思想의 洗禮를 받은 後이었다.

<三部會>(Étates généraux)의 <國民議會>(National Assembly)에로의 轉移는 單純한 名稱上의 變化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第三身分의 새로운 登場과 더부려 프랑스議會는 이제는 從來의 各身分의 代表가 아니라, 統一된 <國民>을 代表함을 意味하는 것이었다<sup>60)</sup>

1789年8月에 프랑스<國民>의 統合을 向한 보다 더 偉大한 前進이 促進되었다. 即 모든 地域의·階級의 障壁의撤廢, 特權階級의 特權 및 歷史的諸權利의 廢止로 프랑스의 國民的統合이 처음으로 實現되었다. 同年の <人權宣言><sup>61)</sup> 속에서, 프랑스革命家들은 <人間과 市民>의 權利를 다음과 같이 嚴肅히 宣言하였다.

即 <모든 主權은 本質的으로 國民속에 存在한다. 어떠한 團體나 個人도 國民으로부터 直接的으로 由來하지 않는 如何한 權威도 行使할 수 없다><sup>61)</sup>고, 이 <人權宣言>은 <法에 依하여 保護된 自由로운 國民>이라는 새로운 秩序에 基礎를 確立시켜 놓았으며, 同時に <自律의 個人>을 모든 國家目的의 窮局의이고 正當한 出發點으로 定立시켜 놓았음은 事實이다. 이 宣言은 啓蒙思想과 名譽革命 및 美國獨立을 貫流하는 理念의 極致이었고, 그것은 政府나 集團의 強力에 對한 個人的 尊嚴性 및 個人的 私的領域의 安全辨이었다. 이 宣言을 읽는 者는 누구나 다 簡潔하게 있어야 할 社會를 道破한 그 偉大한 精神力에 感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人類史上 이만큼 한 思想이 現實을 뒤흔들어 놓았던 文獻은 또 없을 것이다. 大革命의 初期段階에 啓蒙思想의 個人主義와 人道主義的性格이 濃厚하였던 理由도 이 宣言에 對한 信念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또 大體적으로 프랑스·네셔널리즘이 自由主義的路線을 維持하였다고 말할수 있다면, 그것은 이 <宣言>속에 内包된 理念 때문이었다.

60) 正式 名稱은 <人間 및 市民의 諸權利의 宣言>(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 있다.

59) Emmanuel Siéyés(1748—1836)는 大革命에 深刻한 影響을 준 論文<第三階級이란 무엇인가?>(Abbé siéyés, Qu'est-ce que le Tiers État? 1789) (大岩誠譯, 岩波文庫)에서 第三階級은 國民에 屬하는 모든것을 包含하나, 貴族만은 封建的殘滓로서의 異質性 때문에 <國家內의 國家>이며, 따라서 國民이 아니라고 斷定하고 있다.

三部會가 解散되고 國民議會가 成立되기 以前에 Mirabau의 提案에 따라 漸時 人民委員會(Représentants du Peuple français)가 成立되었다. 그러나 人民(People)은 賤民(Canaille, Pöbel)을 意味하여 一般的으로 國政의 運營에 關係없이 服從하는 下層民인데 反하여 國民(Nation)은 國家運營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는 支配層 教養있는 身分을 意味하였다. 이리하여 <人民委員會>代身의 國民議會(Assemblée nationale)의 名稱을 採擇하게 되었는데 人民(庶民)이 國民의 核心이라는 主張의 端的인 表現이었다.

61) C. Hayes,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p. 35,

(25)

그러나 權威主義的이고 全體主義的에서 네셔널리즘으로의 危險性은 이미 大革命 속에 潛在하고 있었다. 그 危險性은 大革命當時의 合理的効率性(Rational efficiency)과 國民的統合에의 热狂主義 속에서 表明되었고, 마침내는 英·美的 네셔널리즘의理念(그리고 當初의 프랑스大革命의理念)을 超越하여 極端的인 中央集權화와 거의 宗教的인 狂信主義에로 化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새로운 네셔널리즘의 热波는 個人과 個人的 自律的領域을 保護하기 為하여 構築된 防波堤를 危脅하였다.

왜 이러한 熱情的인 네셔널리즘이 發生하였는가? F. Schuman은 現代國際政治를 움지기고 있는 五大한 要因으로서 네셔널리즘을 들고 있으며, 一般民에게 네셔널리즘을 鼓吹하기 為하여 採用되고 있는 愛國心教育·宣傳 및 테크니크를 論한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것(테크니크)만으로서는 왜 네셔널한 愛國主義(National Patriotism)가 西歐文明의 文化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이와같이 모든 것에 浸透할 만큼의 地位를 占하기에 이르렀는가를 說明하기에는 不充分하다. 그것은 不斷한 自己認識의 努力を 繼續하고 있는 西歐人조차도 아마도 決코 充分히 理解할 수 없는 神秘의 하나이다><sup>62)</sup>고, 또 Hayes는 <무엇이 네셔널리즘의 流行을 招來하였는가?>를 設問하고 이에 對한 多角的인 考察을 展開하였다. 即 그 要因으로서 哲學者的思想·制度·現代의 一般的趨勢·宗教心·民族主義의本能·經濟……等을 하나 하나 檢討하고 結論的으로 <近代에 있어서 무엇이 네셔널리즘으로 하여금 크게 流行케 하였는가? 우리는真正 그 原因을 모른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遺憾이다. 萬若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네셔널리즘의 未來에 關하여 比較的正確한 推測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狀態로서는 우리는 假說과 暗示로써만 滿足할 수 밖에 없다. 이 中에서 가장 그럴듯한 原因은 民族國家가 文明을 가장 잘 保證하고 進步시킬 수 있는 唯一한 手段으로 看做하는 近代의 支配的 趨勢라고 나 할까 생각한다><sup>63)</sup>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當時 프랑스의 热狂的인 네셔널리즘이 發生한 根本的原因은 合理的인 經濟社會的說明만으로서는 充分히 解答될 수 없는 神秘로 남는 問題일지 모른다. 近者에는 社會心理學의 考察方法이 이 問題解決에 導入되고 있다. 如何던 이 새로운 狂熱的인 프랑스 네셔널리즘은 產業革命期에 進入한當時의 모든 生活이 急激한 變化를 겪고 있었던 바로 그 時期에 發生하였다는 것만은 事實이다. 即 農村經濟는 都市經濟으로 轉換되었고 產業은 機械化되고 있었다. 傳統的으로 組織·完成된 村落과 길드는 解體되고 非組織的인 市民大衆이 새로 擡頭하였다. 大衆과 大衆心理는 새로운 問題를 이때에 이미 提起하였던 것이다. 即 傳統社會가 保障하여 주었던 <安定>을喪失한 大衆은 유토피아的인 希望에 依해서나 或은 理由없는 어떤 不安全感으로 因하여 容易하게 動搖될 수 있는 狀態에 있었다.當時의 새로운 機動力은 엘리트(elite)의 急速的인 形成을 促進케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大衆의 希望과 恐怖感을 操作할 수 있는 테크니크의 熟達을 더욱 容易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엘리트나 大衆에게나 다 같이 네셔널리즘이 야말로 組織과 自己表現을 為한 가장 좋은 媒介體가 되었던 것이다. (그

62) E.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1933. 3rd, ed. p. 302. Ch. 8. The, Cult of Tribal God,

63) Hayes. ibid. p. 302. why the vogue?

後發生한 社會主義는 네셔널리즘과 함께 마침내는 스타틴 主義와 파시즘속으로 합流되었다). 프랑스大革命以後 네셔널리즘에 浸潤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社會經濟的問題가 더욱 더 重要한比重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만큼 더욱 더 自然法思想에 立脚한 個人主義的 理念은 頗色하여 갔다. 이리하여 1789年으로부터 統領政府가樹立된 1795年에 이르는 동안에 프랑스·네셔널리즘은 그 안에 相反된 두 個의 極端에 到達하였다. 卽 其一은 <人權宣言>속에 宣明된 個人的 尊嚴性에 對한 是認과 其二는 個人的 權利에 對敵하는 集團的激情의 爆發이 그것이었다. 이 重大한 時機에 프랑스는 야누스(Janus)와 같은 岐路에 스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마침내는 後者의 길을 選擇하였던 것이다.

1791年7月에 實施한 Venaissin과 Avignon의 두 教皇領內에 居住하는 住民들의 프랑스國民에로의 統合을 為한 國民投票는 民族自決原則의 問題를 처음으로 提起하였다. 또 이때에 實施한 國民投票에 依한 一般意志의 確認이란 方法은 그후에 흔히 使用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國家利益이란 美名下에 흔히 濫用되었고, 統合에의 <渴望>이란 흔히捏造된 것이었고, 一般民의 意思란 흔히 操作된 것이었다<sup>64)</sup>.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初期에는 國民的統合과 友愛라는感情은 立法者들의 說得演說에 依해서만은 아닌, 一般民衆의 衷情과 自發性으로 부터 發生하였다. 1789年11月 Languedoc와 Dauphiné의 여러 都市와 農村에서 온, 約 1萬2千名의 國防軍(National guards)에 自願한 市民들은 Rhône와 Étoile에 둘여 다음과 같이 宣誓하였다. <公共의 福祉를 為하여 友愛있게 보인 Rhône兩岸의 市民軍인 우리는, 國家安全을 為하여 獻身한 우리는 가슴과 武器위에 손을 얹고 永遠히 團結할 것을 하늘에 盟誓한다. 우리의 諸州의 모든 差別을 斷然코 撤廢하는 우리는, 우리의 勞力과 富를 共同의 祖國에게 提供하며 國民議會로 부터 山來한 모든法을 支持하는 우리는 이 神聖한 義務를 完遂하기 為한 모든可能한 助力を 서로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 自由를 為하여 危機에 빠진 巴리나 그以外의 프랑스의 모든 都市의 兄弟들을 돋기 위하여 달려올 것을 盟誓한다><sup>65)</sup>고, 法律的性格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宗教的 信念의 表明에 더 가까운 이 誓約은 1790年1月에 Pontivy에서도 Brittany와 Anjou地方의 15萬名의 國防軍의 代表者들에 依하여 宣誓되었다.同年5月에는 Lyons에서도 Burgundy, Frounchecomté 및 Lyonnais를 代表하는 더 많은 群衆들이 國民的統合과 友愛라는 神聖한 目的을 위하여 보다 더 热狂的으로 宣誓하였다. 同年7月14日 바스티유監獄占領1週年紀念式의 <聯合祝典>(Fête de la Fédération)에서 國民的統一과 友愛라는 自發的感情은 絶頂에 達하였다. <15萬名의 着席聽衆과 그 보다 더 많은 起立聽衆들 앞에서 각 州의 代辯者 5萬名은 다같은 國民的同胞임을 宣誓하였다. 2百名의 神父가 미사로써 祝福하였고 1,200名의 樂士들이 奏樂하였고 50台의 大砲가 祝砲를 올렸다><sup>66)</sup>고 Hayes는 當時의 光景을 描寫하고 있다. 프랑스의 모든 團體에는 <市民은 祖國을 위하여 태어났고 祖國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刻銘된 祖國

64) H. kohn, Nationalism, p. 25.

65) Hayes, ibid, p. 36.

66) Hayes, op. cit. p. 37.

의 祭壇이 建立되었다. 이 祭壇앞에 사람들은 愛國歌로써 集合하였고 國民的統一을 支持하며 最高의 法律授與者인 主權人民에 服從하여, 이를 保護할것을 誓約하였다.

적어도 革命初期에는 프랑스의 <國民的統合運動>은 프랑스 만을 爲한 排他的인 것은 아니었다. 革命初期의 프랑스·네셔널리즘은 國際主義와 人類(Humanity)에의 貞摯한 獻身이 除外된것은 아니었다. 프랑스 各州의 市民들이 하나의 프랑스 國民으로서의 友愛로 結束되어야 하는 것처럼 유럽과 全世界의 人民은 自由와 平等, 平和와 進步라는 國際的 友愛로 結束되어야 한다고 프랑스革命家들은 생각하였다. 프랑스 國民이 國民的統合과 國民主權을 確立함으로써 專制와 特權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人民들도 民族自決權을 主張하고 프랑스의 例를 따라 그들을 뮤고 있었던 鐵鎖를 粉碎하고 있었다. 1791年 7月의 Avignon과 Venessian의 先例를 따라 1792年에는 Savoy에서, 그 翱年에는 Nice에서 國民投票에 依한 國民的統合이 實施되었다. 네셔널리스트인 同時에 人類主義者(Humanist)이기도 했던 初期의 프랑스 革命家들은 다음과 같은 信念을 품고 있었다. 即 가장 人道主義的 國家인 프랑스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과 世界를 위하여 世도 努力하여야 한다는 것, 프랑스는 그의 主張을 自國民에게만 局限하지 말고 他國人民에게도 프랑스를 따르도록 激勵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 一例證으로 프랑스革命家들은 같은 思想을 품고 있었던相當數의 外國人들을 빠리에 招請하여 名譽빠리市民權을 주었던 事實을 들 수 있다. 그中에는 Thomas Paine, Jermy Bentham 및 無政府主義者인 Cooltz가 包含되었다. 自稱<人類의 擁護者>이며 <世界共和國>(The universal Republic, or Adress to Tyranicides)의 著者인 Cooltz가 프랑스選舉權에 依하여 國民議會와 國民公會에서 다 議員으로 被選되었다는 事實은 當時의 프랑스·네셔널리즘의 人道主義的性格의 一面을 端的으로 證示하여 준다. 이리한 人道主義의 自由主義的要素는 大革命의 遷程을 通하여 뿐더러 19C와 20C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네셔널리즘속에 全的으로 消滅되지 않고 存續하여 왔음은 事實이다<sup>67)</sup>.

그리나 이리한 人類愛와 國民的統一에의 自發的感情은 오래 持續하지 못하였다. 政治的·宗教的分裂은 自發的으로 形成된 프랑스<國民>을 다시 分解하여 버렸던 것이다. 合理的能率性을 標榜한 國家는 信仰이라는 傳統的인 普遍的紐帶를 不信하면서도 國家自身에게 從來와 같은 거의 宗教的인 獻身을 할것을 強要하였다. 墮落된 國家는 그自身의 墮落된 教會를 要求하였던 것이다<sup>68)</sup>. 이제까지는 人間生活의 모든 基本的 行爲인 出生 結婚 및 死亡은 教會의 所管으로 教

67) 이에 關하여 Péguy(1873-1914)는 《共和主義의 神秘(Mystique républicaine)》에 依하여 歷史的危機를 克服하고 個人의 自由와 人道主義의 理想을 向하여 不死鳥와 같이 邁進하는 것이다. 수많은 苦難의 道程을 踏으면서 個人의 自由와 人道主義의 理想을 志向하려는 프랑스는 루랑이 Romain Roland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속에 端的으로 表示되어 있다고 하겠다. 즉 <당신은 아직도 많은 反動이 올것을 보리라. 우리가 保護한 모든것이 破壞될 것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念慮할 必要是 없다. 人類의 道程은 山道이다. 그는 曲折을 올라가는 것이며 이따금 後退하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恒常 올라가는 것이다>. 고.

H. Kohn; Prophets and Peoples, Studies in Nineteenth Century Nationalism, 誌에서 引用  
68) H. Kohn, Nationalism, p. 25

會로부터 그 意義와 合法性이 賦與되어 왔었다. 그런데 1792年以後로는 國民公會가 세운 新生 國民國家(第一共和國)의 權威下에 一切의 家庭的·個人的行爲가 規制되었다. 이 新生 國民國家의 새로운 페트리오티즘은 처음부터 热狂的인 極端主義으로 치달았다. 月曆·新生兒·市街·廣場等은 이 새로운 네셔널리즘이라는 市民的宗教를 表示하는 名稱으로 呼稱되었다. 傳統的인 宗教의 信奉者인 大部分의 사람들은 그들의 傳統的信仰의 教理·權威와 新しい 네셔널리즘의 教理·權威와의 兩者사이에서 良心의 葛藤을 느끼지 않을수 없도록 强要되었다. 從來에 教會가 主로 擔當하여 왔던 教育도 이 새로운 네셔널리즘에 依하여 根本的으로 變化되었다. 프랑스大革命은 兒童들을 有德하고 愛國的인 市民으로 鑄造하기 위하여 義務的國民教育制度를 創設하였다. 教育은 義務이며 國家의 重要利益이며 國民教育만이 祖國統一과 市民的統一을 實現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라는 既述한 바 Rousseau의 發想은 여기 처음으로 實踐된 것이다. 古典과 人類에 對한 強調는 愛國的인 노래와 國史에 對한 強調로 變하였고, 적어도 理論的으로는 技術訓練과 體育에 對한 強調로 變하였다. 個人的娛樂이나 宗教的感情에 奉仕하였던 藝術, 그中에도 特히 音樂은 國民的感情을 鼓吹하는데 奉仕하여야 했다. <말세이유>가 奏樂되었을 때 그것은 사람의 피를 뜨겁게 끓게 하였다. 모든 一般大衆이 參加하여 指導的役割을 擔當함으로써 壮嚴하고 崇高한 感激에陶醉할 수 있게 하는 <國民祭典>이 考案되었다. 祭典과 學校는 全國的으로 通用될 수 있는 標準語의 傳播를 促進하였다. 從前까지는 地方語가 各地方마다 거의 排他的으로 使用되어 왔었고 大革命 以前까지의 프랑스高等教育은 프랑스語 보다 라틴語를, 프랑스作家 보다는 古典作家를 더 重視하였다. 그러던것이 이제는 프랑스標準語以外의 一切의 外國語使用은 禁止되었다. 이 一連의 果敢한 國民化(Nationalize)의 革新은 新生 共和國에 對한 祖國愛의 激情속에서 斷行되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感情은 愛國的情熱의 化身이며 清廉潔白한, 그러나 어름과 같이 冷酷한 눈을 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戰慄케 했던 恐怖政治의 獨裁者 Maxmillian Robespierre(1758~1794)의 다음의 말속에 가장 잘 表明되어 있다. <果然 그렇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自然이 사랑으로써 抱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나라는 自由와 幸福의 樂園이 되도록 만들어 줘 있다. 이 賢明하고 誇持높은 人民은 真實로 榮光과 德을 위하여 태어났다. 오, 나의 祖國이여, 不運이 나로 하여금 먼 異國에 태어나도록 하였더라도 나는 그대의 繁榮을 위하여 하늘에 늘 祈願하였으리라, 나는 그대의 奮鬪와 德을 啓誦하면서 눈물을 흘렸으리라, 나의 注意깊은 靈魂은 그대의 名譽로운 革命의 모든 運動을 끝임없는 讚美로써 注視하였으리라. 나는 그대의 市民들의 非命을 부려워 하였으리라!……오! 至高의 人民이여! 나의 모든 것을 義牲으로 바치오니 받으시라! 그대들 속에서 태어난 者는 幸福하리, 그대의 幸福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者는 더 幸福하리!><sup>69)</sup>. 이 거의 宗教的인 愛國心은 이미 Rousseau가 <샬렛드의 果樹園>이라는 詩 속에서 <祖國의 危機에 눈물흘리며……옛날 賢明하던 슈네브, 아, 나의 사랑하는 祖國이여!……>

69) 이 글은 그가 <Report to the National Convention 1794>속에서 國民參與를 慶祝하여 쓴것이다. Cf. H. Kohn, Ibid pp. 26~27.

(29)

라고 吐露한 心情 마로 그것과 똑같았다. 이와같이 理性的 自由가 統治하는 프랑스의 再生이라는 當初의 合理主義的인 理念은 終局에는 거의 宗教的인 感傷主義에로 變하여 갔다.

王 普遍的平和의 使徒를 標榜하여 出發하였던 프랑스大革命은 終局에는 프랑스와 유럽을 宗教戰爭以來의 어느 戰爭보다도 더 長期의 悲慘한 戰爭속에 휘몰아 놓았다. 이 戰爭의 濁中에서 傳統的인 國家들은 消滅되고 이스라엘로부터 세르비아와 리시아에 이르기 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부터 놀웨이에 이르기 까지 새로운 忠誠과 새로운 民族的激情이 膨漲하였다. 프랑스共和國의 戰爭은 지금까지 意識하지 못하였던 強力한 새로운 네셔널리즘에 불을 질러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當時의 네셔널리즘은 1789年の 精神이 아닌 專制와 戰爭와가 密接히 關聯된 集團的感情의 爆發이었다.

1792年9月25日, 鋼鐵같은 意志力과 火山과 같은 精力의이고 豪膽한 愛國者인 Danton(Georges Jacques Danton, 1759~1794)은 <프랑스는 不可分的全體(an individual whole)가 되어야 한다. 마르세이유市民은 Dunkerque市民과의 提携를 破壞하려고 한다. 프랑스는 代議制의統一體(Unity of Representation)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프랑스의 統一을 破壞하려고 願하는 者는 누구나 다 死刑에 處할 것을 要求한다. 그리고 나는 國民公會(National Convention)는, 政府의 基礎로서 創設되어야 할, 代議制와 行政執行權의 統合을 宣布할 것을 要求한다. 이 神聖한 調和를 壟地利人은 戰標敘이는 배우지 못할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敵은 殲滅될 것이라고 나는 誓約한다><sup>70)</sup>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 말은 事實上 그대로 實踐되었다. <不可分的全體>인 國家에서 離脫한, 그리고 離脫하려한다고 看做된 모든個人과 集團은 無慘히 死刑되었고 議會와 行政權은 統合되었고, 그 <神聖한 調和>의 힘은 프랑스人과 外國軍隊를 戰標케 하였으며, 마침내는 共和國은 勝利하였다(1792. 9. 20. Valmy의 勝利). 이 勝利는 君主가 아닌, 國民의 勝利이었다. 同時에 이 勝利는 프랑스로 하여금 1789年の 勸王主義(Loyal Monarchism)로 부터 共和主義의 네셔널리즘으로 轉移시켰고, 18C의 啓蒙主義로 부터 近代의 侵略的인 네셔널리즘으로 變質시켜 놓았던 것이다.

Valmy의 勝利로 一旦은 對外的危脅은 消滅되었으나 그것 보다 더 危險한 內亂이 일어났다<sup>71)</sup> 이 內亂은 프랑스의 少數革命指導者로 하여금 戰爭을 爭取하고 國內의 모든 <異端者>를 無慈悲하게 肅清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集權化하려는 悲壯한 決心을 갖게끔 만들었다. 이리하여 테리는 <共和國>을 救出하였다. 그러나 테리는 1688年으로부터 1789年에 이르는 英·美 및 프랑스의 思想을 貫流하던 理念——妥協·同意 및 法治의 個人의 自由에 對한 尊重——을 衰失케 하였다. Robespierre는 그가 <眞摯하고 有德한 愛國者>라고 看做되는 者만이 真正한 市民이며 그렇지 않는 者는 強制로 祖國의 真正한 이들로 鑄造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王의 專制政治를 두려워 하였던 Marat (Jean Paul Marat 1743~1793)는 프랑스는 <自由의 專制政治>를 實

70) H. Kohn, Ibid. p. 27.

71) 프랑스西部地方에서 일어난 內亂으로 王黨派와 亡命政治家와 結束한 農民의 一部가 革命義勇軍參加를 拒否한端에서 發端되었다.

施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들은 全體國民의 利益 만을 爲하여 排他的으로 獻身하고 真正하고 絶對로 誤謬가 없는 <一般意志>를 尊重하는 有德者에 依한 獨裁政治만이 祖國을 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絶對로 誤謬가 있을수 없는 그들의 領導에 對한 如何한 反對도 <國民>(Nation)에 對한 叛逆으로 看做되었다. 全國民은 總動員되어야 하고 戰爭은 모든 分野에 결친 總力戰이 되어야 했다. Marat는 1792年9月2日에, 이미 20C의 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의 戰爭觀을 아래와 같이 披瀝하고 있다. <祖國이 危機에 處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祖國에 對한 破廉恥者이며 叛逆者라고 宣告됨이 없이는 祖國에의 奉仕를 拒否할 수 없다. 前進을 拒否하는 者或是 公共의 安全을 爲하여 取해진 措置를 直接的으로나 間接的으로나를 莫論하고 拒否하는 市民에게는 누구나 다 死刑을 宣告하라><sup>72)</sup>. 이에 이르러 從來의 戰爭의 性格은 크게 變하였다 即 從來의 戰爭은 制限된 努力과 制限된 分遣隊에 依한 制限된 戰爭이 었으나 1793年以後로는 總力戰으로 化하였다. 國民皆兵制度는 이미 Rousseau에 依해서 提唱되었는데 이 때에 實踐되었던 것이다<sup>73)</sup>. 國民公會는 적어도 理論上으로는 모든 人的・物的 資源이 國家(Nation)를 爲하여 獻呈되어야 함을 要求하여 이를 實踐에 옮겼다. 사람과 產業이 總動員되고 作家와 藝術家도 人民을 热狂토록 煽情케 하는 일에 從事되었다. 이 모든 努力은 結實을 보아 侵略軍은 擊退되었고, 짧은 프랑스國家는 救出되었다. 그러나 프랑스國家는 武力에 依해서 救出되었던 것이다. 자코뱅黨의 狂信의인 過激性을 一方의으로 非難할 수만 없는 理由는 없지 않다. 그들이 理想主義의 動機나 單純한 泰려만을 爲主로 한 暴力輩가 아니었음을 是認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의 現實의인 成果는 決코 過少評價될 수는 없다. 그들의 恐怖政治・不寬容・流血・獨善 等의 <過激性>은 그들의 狂信主義의 所產만이 아니고 國內의 利己的個人主義者와 外國軍隊의 侵略에 起因하였음을 看過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그들의 革命課業은 內憂外患의 涼中에서 遂行되었던 故로 萬若에 이려한 偶然의인 歷史的 事實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過激化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可能性도 認定할 수 있다. 그러나 戰爭의 危機가 살아진 다음에도 當時의 英語使用國家間에는 알지 못할 程度로 強力한 <軍國主義>가 프랑스・네셔널리즘속에 깊이 浸透되었다는 事實<sup>74)</sup>에 問題의 深刻性이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新生 民族國家는 從前의 가장 強力하였던 王朝國家보다도 더 偉大한 軍事的榮光으로 싸여졌다. 이에 이르러 <自由는 光榮 안에 消滅되었다!>(la liberté s'est dans la gloire!)고 하겠다.

이리하여 啓蒙主義의 合理主義의個人主義와 人道主義로 부의 出發하였던 프랑스・네셔널리즘은 畢竟에는 자코뱅・네셔널리즘으로 變質・墮落되고 말았다.

72) H. Kohn, Ibid, p. 30.

73) Rousseau는 上揭한 <Considération sur la Government de Pologne, et sur la Réformation Projete en April 1772>에서 國民皆兵制度의 創設을 提案하였다. 國民皆兵制는 國家의으로 經費가 적게들고, 모든 自由市民이 軍務에 奉仕함을 義務로 생각할 뿐 아니라 名譽로 생각하게 된다. <모든 포랜드人은 國王의 劃策과 隣國의 그것에 對抗하여 그의 自由를 守護하기 위하여 戰士가 되리라>. 軍隊는 外國의 侵略者에 對하여 祖國을 防衛할 뿐 아니라 人民의 自由와 權利를 確保할 任務가 있다고 하였다. 崔文換上揭書 pp. 129-130.

74) H. kohn, ibid, p. 28.

(31)

그리면 C. Hayes의 所論을 中心으로 자코뱅·네셔널리즘의 特徵을 알아보기로 한다<sup>75)</sup>. 첫째로 자코뱅·네셔널리스트들은 啓蒙主義의 <不可分的人間>(Individual human beings)이 아닌, <單一不可分的인 共和國>(République une et indisible)이라는 恒常 正當하고 無誤謬의인 集團個性을 目標로 하였던 故로 이에 背反·離脫한다고 看做되는 어떤 個人이나 黨派도 叛逆者로 斷罪處斷코져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異端者>에 對하여 恒常 猜疑的·不寬容의인 性格을 갖기 마련이었다. 둘째로 그들은 그 目的達成을 위하여 對內外的으로 恒常 軍國主義와 데리에 依存하게 되었다. 이제 集團的權力으로 부터의 自律的調人の 解放을 意味하였던 啓蒙主義時代의 自由는 絶對的인 集團個性에 對한 軍事的義務와 獻身이라는 뜻으로 變하여 버렸다. 《自由는 모든市民들로부터 債權을 갖는다. ……이리하여 性의 男女를 不問하고, 年齡의 老少를 不問하고 모든 프랑스人民은 自由를 守護하기 위하여 祖國에 依하여 動員된다. 모든 道德的 肉體的 能力, 모든 政治的 產業的能力은 <祖國>(patrie)에 所屬된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準備된 軍事的運動에 參與케 하라》<sup>76)</sup>고 Barres는 말하였고 또 이 말은 그대로 實踐되었다. 그들은 國民과 軍隊, 軍隊와 共和國을 密接히 結付시켜 徵兵制度를 創設하였으며, 이 軍事制度는 그 後 모든 民族의 軍事的模範으로 되었다. 셋째로, 자코뱅·네셔널리즘은 狂信의인 宗教로 化하고 말았다. 자코뱅·네셔널리스트들은 啓蒙主義의 純粹한 理念 속에 冒險小說의인 爽快한感情과 로맨티크한 宗教的體驗을 混合하였다. 그들이 發展시켰던 象徵과 儀式——三色旗·國歌·祖國의 祭壇·大集會·行列等은 俗教를 代身한, 네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宗教의 感激의인 表現이었다. 그들이 善이라고 믿는 바를 傳하기 위하여 傳道者的 熱情에 불타는 것, 이것이 자코뱅·네셔널리즘의 特徵中의 또 하나이다. <프랑스에 善한 것은 유럽에도 善한 것이다>라는 傳道者的使命感에 불타는 热情은 자코뱅의 軍國主義로 化하고 畢竟是 나폴레옹을 誕生케 하였다.

나폴레옹의 對內·外의 힘의 源泉은 자코뱅·네셔널리즘이었다. 그의 目的是 Charlemgn 的或是 Caesar 的인 帝國의 復活이라는 個人的·家族的인 것이었지 決코 自由主義의 네셔널리즘의 實現은 아니었다<sup>77)</sup>. 그는 自由를 否定함으로써 大革命의 理念을 除去하여 버렸다. 비록 그가 언제나 人民의 아들임을 自稱하여 國民的·民主的主權의 原則를 主張하였고 平等과 友愛를 強調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은 自己의 帝國主義的國家權力を 強化하려는 野望의 手段으로 利用하였음에 不過하였다 것이다. 그가 이탈리아와 폴란드에 民族主義의 渴望을 嘘起시켜 놓았으면서도 이를 그의 帝國과 王朝의 一時的利益 밑에 服屬시켜 놓았던 史實은 그 一例證이다. 나폴레옹은 그의 個人的 野望達成을 위하여 자코뱅들이 創案해 놓은 모든 愛國的宣傳方法과 機構를 빙틈 없이 利用하여 프랑스의 모든 世代를 <愛國主義者>로 育成하여 놓았다. 그 結果 프랑스國民은

75) 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pp. 50~57.

76) 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pp. 53—54. Moniteur, April 4, 1792. p. 420.

77) Cf. Comte de las Cases, Memoirs of the Life, Exile, and Conversations of the Emperor Napoleon London, 1836, Vol. Iv, pp. 100—109. Cf. H. Kohn, Napoleon and the Age of Nationalism,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XXII 1950, pp. 22—23.

프랑스皇帝가 引導하는 곳이라면 어디에 가서도 죽을 수 있는 無條件的인 覺悟와 準備가 되어 있도록 鑄造되었다. 結局 자코뱅·네셔널리즘의 課業은 나폴레옹에 依하여 繼承되었고 1792年에 開始된 戰爭은 나폴레옹에게 繼承되어 1815年까지 繼續된 셈이다. 나폴레옹의 没落으로써 그 끝난 이 戰爭은 자코뱅·네셔널리즘의 論理的·必然的인 歸結은 아니었지만 자코뱅·네셔널리즘의 歷史的結果였던 것이다<sup>78)</sup>. 그리고 그것은 Rousseau의 네셔널리즘 속에 内包된 既述한 바 그 否定的要素의 歷史的展開에 不遇하였다 것이다.

나폴레옹의 没落의 原因은 그의 過重한 野望에만 있기는 않았다. 나폴레옹 自身의 戰爭으로 因하여 發生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自身은 전히 意識하지 못하였던 新로운 힘, 即 유럽人民의 네셔널리즘, 그 中에서도 特히 獨逸的네셔널리즘에 依하여 나폴레옹이 没落하였음은 歷史의 아이로니라 하겠다. 이리하여 伊·獨·西班牙·露 等의 所謂 <非西歐的>國民들은 나폴레옹으로부터 네셔널리즘을 배웠다. 그러나 그들이 배운 當時의 네셔널리즘은 啓蒙思想의 自由主義理念을喪失하고 形骸化된 네셔널리즘에 不遇하였다. 即 그것은 自然法思想과 倫理的個人의 自由를 實現하기 為한 手段으로서의 네셔널리즘이 아니라 처음부터 集團的權力의 崇拜로서의 네셔널리즘이었던 것이다. 이에 네셔널리즘은 <第四期>에 進入하였다.

<第四期>의 <全體主義的>네셔널리즘은 17·8C의 英·美·佛 等의 <西歐型>보다 늦게 또 相異한 物質的·精神的基盤 위에서 發生하였으나, 兩者 間에 一脈의 繼起性과 連關係를 認定할 수 있다. 이 點에서 Rousseau의 影響은 <第四期>에 까지 미치고 있다. C. Hayes도 이 兩者間의 繼起性을 다음과 같이 認定하고 있다. <그것(第四期의 全體主義的네셔널리즘, 筆者註)은 Rousseau, Herder 및 Mazzini로 부터 Maurras와 Hitler 및 Mussolini에 이르는 긴 路程이었고, 이 路程은迂迴的인 듯하다. 前者(Rousseau, Herder 및 Mazzini)가擁護하는 바로 그 것을 後者(Maurras, Hitler 및 Mussolini)는 批難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後者는 前者の 直系的投射(Lineal project)로 보인다. 全體主義的네셔널리즘은 人道主義的네셔널리즘의 先驅의 藥績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이 될수는 없다. 그리고 排他的이고 不寬容的인 네셔널리즘(即 今世紀의 全體主義的네셔널리즘·筆者註)은 自由主義의이었던 民族主義者들에 依하여 創造·育成되어 主로 大衆的宣傳機關에 依하여 傳播되었다><sup>79)</sup>고 指摘하고 있다. 但 Hayes는 Rousseau를 人道主義的네셔널리스트로서만 理解하고 있음은 H. Kohn, E. Barker 等과는 對照의이다.

## 結論

지금까지 筆者는 Rousseau를 中心點으로 그 以前과 以後의 近代네셔널리즘의 理念의 發展過程을 論述하였다. 17C 英國으로 부터 出發한 그 理念은 Rousseau를 媒介로 受容變形되어 프랑스大革命의 進展中에 誕生한 프랑스·네셔널리즘에 直接的이고 深大한 影響을 주었다. 筆者는

78) C. Hayes, ibid, pp. 82—83.

79) C. Hayes, ibid, p. 308

그의 上權理論의 核心인 <一般意志>의 分析에 依하여 指摘한 바 그의 思想속에 潛在한 二重性——即 啓蒙時代의 個人主義의要素와 權威主義의·全體主義의要素——中에서 不幸하게도 後者가 大革命의 過程에서 畢竟是 자코뱅·네셔널리즘이라는 形態로 實踐되었음을 歷史的으로 檢證하였다. 이 事實로 부터 17·8C의 英美의 네셔널리즘과 區別되는 프랑스 네셔널리즘의 特色이 抽出될 수 있을 것이다.

即 名譽革命으로 부터 프랑스大革命勃發當時까지의 18世紀間에 發展하여 왔던 英·美的 네셔널리즘은 個人的 私的領域의 尊重에 力點을 두어 國家란 이를 保護하여 주는 手段에 不過하다고 보았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프랑스네셔널리즘은 市民的義務와 尊嚴性은 政治活動과 國家와의 完全한 統合의 實現으로써만 確保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換言하면 英·美的 네셔널리즘이 個人的 自律性에 絶對至高의 價值를 認定하였음에 反하여 프랑스·네셔널리즘은 特殊的個人보다 <集團個性>(Collective personality)에 最高의 價值를 두었다. 그 結果는 不知不識間に 個人主義를 超剋하여 權威主義의·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으로 化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네셔널리즘이 啓蒙思想의 個人主義로 부터 出發하였다는 點에서 英·美와 同一한範疇에 屬한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이 理由로 프랑스·네셔널리즘은 나치즘의 全體主義와는 峻別된다. 나치즘의 全體主義는 처음부터 民族共同體(Volksgemeinschaft)라는 有機體의 全體 속에 自由로운 個人을 埋沒하였으며, 그 思想的源泉도 啓蒙思想의 合理主義가 아니고 非合理的인 浪漫主義에 立脚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프랑스·네셔널리즘이 結果적으로 個人을 超剋한 集團個性에의 絶對服從을 強制하였다는 點에서 17·8C의 英·美的 그것과 區別되고 오히려 나치즘의 全體主義와 共通하는 特色을 갖는다. 그리고 이 集團個性이라는 神話는 Rousseau의 <一般意志>로 부터 發想되었다는 것은 既述한 바 있으나, 여기에 Rousseau로 부터 Jacobinism을 거쳐 나치즘에로의 一脈의 思想的繼起性의 存在를 認定할 수 있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Rousseau는 今世紀의 全體主義의·네셔널리즘의 形成에 까지 影響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Rousseau의 <一般意志>속에 潛在한 自然權 및 自然法思想에 立脚한 個人主義와 權威主義의·全體主義라는 相反·對立하는 二重性이 如何히 同一한 個性속에 共存할 수 있었으며 너구나 後者が 前者보다 優勢하게 表出되었는가? 이 問題에 對한 究明은, 왜 全體主義의 네셔널리즘이 擡頭하게 되었는가에 對한 解答에 어떤 端緒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Rousseau의 問題는 그것이 非單 Rousseau 一個人의 問題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E. Barker의 表現을 빌리면 Rousseau의 <社會契約論의 哲學은 架橋의 哲學이다. 그것은 自然法의 理想化로 부터 民族國家(Nation-State)의 理想化에로 移行하는 裨程標이었다>는 點에서, 그는 啓蒙主義時代로부터 다음 時代에로 넘어 간 象言者の文明批判家요, 새로운 價值觀에로의 轉換을企圖한 人物이었기 때문이다.

Rousseau의 이 二重性的 問題는, 本論에서 그의 思惟課題에 關한 容觀的要因의 考察에서 言及한바 있으나 觀點을 달리하여 그의 二重人格의 性格(personality)이라는 側面에서 根源의 으

로 考察할 수 있을 것이다. 即 Rousseau 는 <母親을 잊은 浮浪兒로 人情의 따뜻함과 愛情에 끌 주렸고 友情을 꿈속에서 찾았고 人間의 차거움을 現實속에서 或은 觀念속에서 體驗하였다. 그리고 늘 挫折感을 느끼고 있었던 그는 自己가 希求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人間性의 解放인지 或은 破壞에 依한 그教化인지, 孤獨인지 或은 사람들과의 交際인지를 決定할수가 없었다. 都大體 人間이란 것은 人間에 依하여 善하게 되는지 惡하게 되는지, 幸福하게 되는지, 더욱 더 不幸하게 되는지를 그는 決定할 수가 없었다. 周圍와의 調和를 얻을수 없고 自我中心的이었던 者들이 흔히 그들의 精神的苦惱를 글로 남기고 있는데, Rousseau 는 그 中에서도 가장 代表的인 人物의 하나이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矛盾 투성이이며 世上을 등진 無政府主義者이며 自然으로 돌아갈 것을 热望하고 늘 夢想하며 一切의 社會의 困窮에 反抗하고 感傷의로 눈물에 沉溺하며 卑屈한 程度로 自意識過剩이며, 環境에 對하여 늘 調和를 欠하였다. 그런 反面에 그는 스파르타와 로마를 讚揚하며 規律과 集團에의 没入을 說教한다. 이 二重性格의 秘密은 苦惱하는 偏執狂에게는 規律主義者가 羨望的인 理想이 된다는 事實 속에 潜在하였다<sup>80)</sup>. 即 그의 不安定하고 孤獨한 性格의一面이 그 무서운 精神的孤獨感으로부터 逃避하기 為하여 어떤 規律의이고 權威主義의in 것에 對한 渴求와 讚美라는 性格의 他面으로 表現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精神分析醫學의in 性格論의 立場에서 그의 主權理論을 考察할 때 그것이 外見上合理的·理論의in 듯하면서도 意外로 그 底邊에는 不安定과 孤獨의 恐怖感이 깔려 있는 것이다.

事實上, 그의 파트리오티즘 即 네셔널리즘, 個人的 意志를 超越한 어떤 普遍的인 意志에의 獻身을 意味하는 것이었고, 그의 <一般意志>란, 말하자면 傳統的인 神에 代贊한 新しい 神을 意味하는 것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그의 <patrie>(或은 Nation)이란, 從來의 <基督教共同體>인 教會에 代贊된 新しい 教會이었고, 近代人の 幸福한 共同生活은 이 새로운 教會에 對한 絶對的인 獻身으로써만 可能하다고 생각한, 神을喪失한 以後의 近代人の 孤獨한 自覺의 表現이었다. Rousseau 라는 個性속에 混在한 二重 人格에 關한 叙事의 說明은 자코뱅·네셔널리즘에게도 똑같이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換言하면 啓蒙主義時代의 不可分的人間(Individual human beings)에 對한 尊重으로부터 集團의 權威에의 崇拜라는 價值觀의 變化原因에 對한 解答도 叙事한 精神分析醫學의乃至 社會心理學의 側面에서 追求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 Fromm에 依하면 人間性은 人間進步의 產物이지만, 人間性속에는 固定된, 變化하지 않는 두 要素가 있다고 한다. 即 生物的인 衝動을 充足하려는 것과, 孤立과 精神的孤獨을 極力 逃避하여 어디엔가 歸屬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精神的孤獨이란, 從來까지 人間이 맺어온 어떤 理想이나 價值와의 關係가 完全히 切斷되어 있다는 것 或은 적어도 그에게 共同感과 歸屬感을 주어왔던 社會의in 行動樣式과의 關係로 부터 完全히 切斷되어 있다는 것, <價値나 象徵이나 行動樣式에의 連結性을喪失하고 있다는 것><sup>81)</sup>을 意味한다. 그리고 人間으로 하여금 그의 精神的孤獨感에 強力한 恐怖感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原因은 <主觀的인 自我意識이라는 事實, 或은 自己를

80) J. L. タルモン・市川泰治郎譯フランス革命と左翼全體主義の源流

81) E. Fromm, Escape From Freedom, N. Y. 1950. 9. 26.

自然이나 他人과는 다른 個體로서 意識하는 思考能力<sup>82)</sup>이라고 指摘하며, <自覺의 程度는 多樣하게 變하나, 이 自覺한다는 것이 人間을 本質적으로 人間的인 問題에 直面시키는 것이다. 即自己를 自然이나 他人과는 다른 것으로 意識함으로써, 또는 漠然하게나마 死·疾病이나 老衰를 意識함으로써 人間은 <나>以外의 모든 것과 比較하여 自己가 열마나 無意味하며 小한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어디엔가에 歸屬하지 않은 限, 또는 生活에 무엇인가 意味와 方向이 없는 限 人間은 自己를 一片의 麻芥와 같이 느끼며 그의 無意味性에 壓潰되고 말것이다><sup>83)</sup> 이라하여 <他人이나 自然과의 原初의 一體性으로부터 解放된다는 意味에 있어서 人間이 自由로워지면 自由로워 질수록, 그리고 또 人間이 더욱 더 <個人>이 되면 될수록 人間에게 남겨진 길은, 사랑과 生產的인 일의 自發性 속에서 外界와 結合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自由나 個人的自我의 統一性을 破壞하는 그러한 紐帶에 依해서 安定感을 求하느냐, 이 兩者中 어느 한가지인 것이다><sup>84)</sup>고. Fromm에 依하면 現代에 있어서의 自由의 問題는 單純히 現代의 高度로 發達한 產業社會의 非情한 錢카니즘나 政治的壓力 等에 依해서 個人的自由가 危脅 받고 있다는 事實만에서 提起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로네상스와 宗教改革 以來로 人間을 從來의 束縛으로부터 解放하여 준 個人的自由는 오히려 그에게 孤獨感과 無力感을 切惑케 하여 주었고, 人間은 그의 自由의 重壓을 견디지 못하고 積極적으로 超個人的 어떤 權威主義의·全體主義의인 아래울로기를 希求하는 일 까지 敢行한다는 事實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가 重荷로 느껴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비록 그것이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 조차도 權威主義의·全體主義의 心理的溫床은 常存하는 것이다. 20世紀의 病理라 할 수 있는 이러한 <自由로부터의 逃避>라는 早熟한 意識이 이미 <豫言者的文明批判家>인 Rousseau와 그의 精神의弟子인 자코뱅들을 通하여 典型적으로 表出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神을 喪失함으로써 歸屬感을 잃은, 그러면서도 主觀的인 自我意識에 눈이 뜬 近代人은 거기서부터 오는 精神的孤獨感으로부터 逃避하기 爲하여서는 絶對로 誤謬가 沒有 <一般意志>即 Hobbes의 “Leviathan”과 비슷한 強力한 權威의 創出과 그것에 對한 피어린 獻身밖에는 없다는 意識이 이미 樂天의 啓蒙主義時代에 나타나 있었다고 하겠다.

우리는 Rousseau가 利己的個人의 恣意性은 正義와 道德性이라는 客觀的 規範에 依하여 制約되어야 한다고 主張한 真情을 決코 過少評價할 수 없다. 또 자코뱅黨의 過激性이 普遍의 侵入이라는 歷史的狀況의 變化에 起因하였다는 것, 자코뱅黨이 單純한 테러만을 爲한 테리리스트가 아닌 <너무도 幻想的일 程度로 理想主義者><sup>85)</sup>였던 그들의 真情도 看過될 수는 없다. 이 點에서 자코뱅·네셔널리즘은 倫理的虛無主義<sup>86)</sup>·反理性主義·反人道主義로 始終一貫한 나치즘의 全體主

82) Ibid, p. 27

83) ibid, p. 28

84) ibid, p. 29.

85) C. Hayes, Ibid, p. 81.

86) The Decline of Liberalism as an Ideology, by J. H. Hallowell, Chp. 6, p. 215.

義<sup>87)</sup>와는 崛別된다. 그러나 個人的 道德的 自由是, 絶對無誤謬의이라고 主張되는 어떤 調和의 인 全體集團에의 絶對服從으로서 實現하려는企圖는 結果的으로 價値의 顛倒是 招來하였을 慸  
이라는 點에 問題의 深刻性이 있는 것이다.

個人과 集團, 이 두 相反되는 要請은 永遠히 調和될 수 없는 運命인가? C. E. Merriam이 指摘했듯이 <權力關係는 集團 必要의 結果的產物이며 人間社會關係의 必然的函數><sup>88)</sup>이라면, 權力과 集團과는 必然的으로 不可分하게 結付되어 있다. 뿐더러 權力은 主權者의 利益 即 各個人의 意思와 關係敘이 權力 그 自體만의 利己性이 그 本源的屬性이라면<sup>89)</sup>, 個人과 權力은 서로 對立하여 社會的存在로서의 人間의 不完全한 屬性이 消滅되지 않는限, 權力 即 集團과 個人과의 對立關係는 永續的인 것이다 할 수 있겠다. Rousseau는 이의 解決을 爲하여 一般意志를 發想하여 자코뱅黨은 이를 實踐하였으나 그 것으로서는 問題解決은 始捨하고 도리히 惡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음은 既論한 바와 같다. 아마도 그것은 <純粹한 論理的基礎 위에 根據하는 理性의 形態는 그것이 社會意識(Conscience sociale)으로 轉化될 때 當初의 確定된 限界를 그대로 維持하지 못하고 變質退化한다><sup>90)</sup>는 理念의 運命(Le sort de idées)이었다고 만 諦念할 것인가?

現代라고 하는, 아마도 人類史가 始作된 以來의 가장 運命의인 時代에 賦課된 하나의 重大한 課題은 <人間의 自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人間의 自由>라는 問題는 根本的으로는 個人的權威와 社會的權威와의 相反된 價値의 顛倒로 부터 發生·提起되었다고 하겠다. 個人的 自由와 同時에 社會的統制도 또한 社會的 存在인 人間에게 不可欠의 必須의 要請인 것이다. 이 不可欠의 必須의인 두 要請을 如何히 調和하느냐 하는 問題는 如前의 未解決인 韓現代史의 宿題로 남아 있다. 그러나 分明한 것은, 나치즘의 民族共同體(Volksgemeinschaft)나 불刹 비즘의 <階級>으로서는 勿論이고, Rousseau式의 <一般意志>에 立脚한 네셔널리즘으로서도 그 問題를 解決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人間의 自由에 危險하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또 分明한 것은 至上最高의 第一義의인 價値는 集團 그 自體에게가 아니라 個人的成長에 두어야

87) Cf. E. Heimann, Ibid, 第五編 第二章, pp. 233—249.

88) C. E. Merriam, Political Power. N. Y. 1934. Preface.

89) Jouvenel은 <그 自體만으로 充分하고 그 自體만을 爲하는 非合理的인 命令>인 利己性이 야말로 權力의 本源的 屬性이며 權力의 形相은 歷史的 變遷에 따라 달랐으나, 權力의 利己性만은 權力의 本質 속에 不斷히 存續하여 왔다고 主張한다.

그 例證으로서 ① 民族國家 成立의 初期에 征服民이 被征服民의 收奪權을 위하여 行使되었던 權力의 利己性은 莫論하고자도 ② 그후 國家의 擴張 및 發展에 따라 나타난 權力의 社會的性格(Qualité Sociale)은 權力 그 自體를 爲하여 나타난 利己的 結果에 不過하며, ③ 또 그러한 權力의 社會化過程에서 나타난 民族國家下에서도 所謂 統治部(Cité du commandement)는 如前의 國民意思와는 別途로 獨自의 意思를 가지고 있으며, ④ 國民主權論으로 나타난 所謂 代表者的性格으로서의 支配體(Corps dirigeant)도 Rousseau가 指摘했듯이 그것 固有한 意思를 가진 獨自의自我(moi particular)를 形成하게 되어 主權者인 各個人의 意思와는 完全히合一하지 못하다는 點等을 들고 있다.

Cf; B. D. Jouvenel, Du Pouvoir, Genève, 1947. 陸士論文, 集第Ⅲ輯(1965. 12) 崔昌奎 政治權力論에의 세로운 摸索 p. 184.에서 再引用

90) B. D. Jouvenel, Du Pouvoir, Paris, 1947. p. 29. 陸士論文集第Ⅲ輯1965. 12 崔昌奎 政治權力論에의 세로운 摸索에서 再引用. p. 160.

(37)

한다는事實이다. 이點에 있어서 17.8C의自然法에 立脚한個人主義은 20C의現代에도 아직도 오히려 더切實히 우리가採擇하여야 할價值原理가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그個人主義의價值原理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個人主義(Individualism)란 利己主義의個人主義와對立된다. 個人主義에는二種이 있으나, 其一은 利己主義의個人主義이며 其二是 理想主義의個人主義가 그것이다. 既述한 바歷史的으로近代의自由主義는 이 理想主義의個人主義에基礎하였고, 理想的個人主義는絕對國家의權力에抗拒하였음과 同時에 利己主義의個人主義에도對立하여 이를克服하기爲하여誕生된 것이다.

그리면 理想主義의個人主義의價值原理란 무엇인가? 그것은, 적어도人間界에 있어서는,至上最高의價值있는 것은 오로지 <人格>뿐이이라는信念위에立脚한價值觀이다. Fritz Strich는 人格(Persönlichkeit)을 利己主義의個人(Individualität)과對立시켜, 人格은 <人間의永遠한本質, 人類的理念을自己內部에서實現하는 것, 그리고永遠한人間性의象徵의具現者로 되도록自己를高揚하는 것>(das Urbild des Menschentums, das zeitlose Wesen der menschlichen Gattung in sich zu verwirklichen und sich zum symbolischen Repräsentaten der ewigen Menschheit zu erhölen), 即普遍妥當한規範에自己가기꺼이順服함을意味한다. 이에反하여 利己主義의個人(Individualität)은 <自己獨特로하는法이며, 오로지이唯一한特殊的境遇에만妥當하는法>(a law unto himself, a law valid only for this one unique case)을意味한다<sup>91)</sup>. 이人格만이 모든것에價值를賦與하는것이며 人格의成長에對한有用性的程度에따라모든것은 그것에相應하는價值가賦與된다. 人格의主體는個人이지個人以外의 다른것이될수없다.個人의集團인社會는人格의主體는아니다. 그렇다고理想主義의個人主義는集團 또는國家의存在理由를否定하는것은아니다. 人格의成長을爲해서는거기에必要한條件이具備되지않으면人格도枯死하여버린다. 이에理想主義의個人主義는그人格成長의條件으로서精神的·物的條件을必要로한다. 集團의權力이나其他經濟 및各種社會團體는教育·宗教·藝術等과마찬가지로人格成長에不可欠의必要한條件이다. 그러므로集團의強制命令의權力의存在理由나그功績은決코輕視乃至無視되어서는아니된다. 이點에서理想主義의個人主義는無政府主義에對立한다. 그러나集團의強制命令의權力은人格成長에必要한條件이자目的그自體는아니며, 第二義的傍系의原理로서의地位가<賦與되는>것이지,他者에게價值를<賦與하는>唯一最高의價值原理그自體는아닌것이다. 筆者は心理學의意味의,또는生物學의意味의<自然的>人間이아닌,啓蒙主義時代의<自然權>에立脚한個人觀을論述한바있다. 이自然權은<自然>(Nature)이人間에게賦與한것이아니고人間(Human being)으로서의人間의本性(Nature)속에先天的으로存在하는權利이며, 이權利는, 그것이宗

91) F. Strich, Dichtung und Zivilization, München, 1938. p. 35. f. from H. kohn, Revolution and Dictatorships. Harvard 1943. VIII, The Individual and the State.

教或은 理性的 둘중 어느 것에 <보다 더> 本源的으로 根源하였던 間에, 人間은 生物學的 或은 心理學的 意味의 <自然的> 存在 以上의 것이라는 뜻을 恒常 內包하고 있었다. 至 <個人> 은 利己主義의 個人과 理想主義의 個人 即 人格(Persönlichkeit)이 있으며, 人格은 F. Strich가 指摘했듯이 自己만을 為主로 하는 것이 아님 <人間의 永遠한 本質, 人類의 理念을 自己內部에 實現하여 自己를 永遠한 人間性(Humanität)의 象徵의 具現者로 高揚하는 것>, 따라서 普遍妥當한 規範에 自己가 自進하여 順服함을 意味하였다. 그리고 그 普遍妥當한 規範은 集團個性인 <一般意志>가 아닌 點에 注意를 要한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의 人格을 我们가 그 最深層의 部分에 까지 究明할 때 거기에서 그는單只 自己만이 아니라 同胞와 人類에 對한 關心과 사랑을 發見할 것이다. 人間은 어느 누구도 他人을 犠牲하고 良心의 苛責을 느끼지 않는 者는 없다. E. Fromm은 나치즘의 殘酷性의 心理學的 分析에서 人間에게는 <逃避의 메카니즘>으로서 그의 孤立感으로 부터 權威主義의 것에 歸屬하려는 마조히즘的 傾向 外에도 사디즘的 傾向이 있음을 指摘하고 있으나<sup>92)</sup>, 人間에게 殘酷한 行爲를 犯하게 만든 것은 그가 元來부터 邪惡하기 때문이 아니라 大部分이 政治的 이데올로기나 政治制度의 缺陷에 起因한다<sup>93)</sup>. 人格의 成長을 至上最高의 目的으로 삼는 理想的個人主義은 當然히 그 內容으로서 同胞와 人類愛를 有成하게 된다. 同胞와 人類를 無視하고 自己成長이 있음을 수 없으며 自己成長 있는 곳에 同胞와 人類에의 關心과 愛情이 高揚深化된다. 自己人格의 成長과 同胞 및 人類의 人格의 成長에의 希求와는 同一精神의 兩面인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理想主義의個人主義는 모든 人類社會成員의 人格完成을 計願하나 于先 自己의 國家社會成員의 모든 人格成長의 實現으로 부터 出發한다. 여기 모든 成員이라 함은 自己와 同胞가 다 같이 包含된다. 따라서 理想主義의個人主義는 自己의 犭牲을 無條件 強要 讚揚하는 그런 類의 精神主義에 對立한다. 왜냐하면, <自己의 人格完成>을 為하여 努力한다는 것은 <自己의>라는 理由로 輕視되어서는 아니 되며 <人格成長>이라는 이름으로 尊重되어야 할 權利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理想主義의個人主義는 自己 만을 關心하는 利己主義의個人主義와 對立한다. 왜냐하면, 自己의 人格成長을 關心한다는 것은 自己와 함께 모든 成員을 關心의 對象으로 삼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自己를 主張함과 同時に 모든 사람에 內在하는 普遍妥當한 規範 即 理性과 良心의 命法에 自己가 스스로 順從하여야

92) E. Fromm, pp. 159—227, pp. 280~263. Passim

93) E. K. Bramsted는 全體主義國家의 弱點의 하나로 그 成員間에 나타난 罪責感의 存在를 指摘하고 있다. 이는 全體主義國家의 成員의 殘酷性이 良心의 苛責 없이 行하여 질 수 없음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비록 良心의 苛責을 그들이 느낀다 하여도 그들의 共犯行爲 即 組織的犯罪는 도리히 全體主義國家의 持續을 도와준다. 이리하여 그들은 어쩔 수 없이 黨에 加擔하여 犯罪를 繼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G. K. Bramsted는 Ivo Duchack의 말을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 있다. <現代의 福祉的軍隊의 國家(welfare-garrison States)는 個人으로 하여금 絶對的인 政治權力에 絶對的으로 依存케 하고 있다. 單純히 全體主義社會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써도 個人은 犯罪하고 있는 것이다. 個人은 죽음이 아니면 亡命으로써만 逃避할 수 있다. 살려고 企圖한다는 것만으로써 그 體制와의 積極的인 協助의 첫段階인 것이다>. Cf. Adam Roberts(ed) Civilian Resistance as a National Defence, 1969. Penguin Books, pp. 86—87.

한 義務에 依해서 <制限><sup>94)</sup>를다는 것, 이것이 理想主義의個人主義의 價値原理이다. 따라서 <人間의 自由>에 對한 危脅은 個人的外部(集團的權力)에서 옴과 同時에 自己가 自身을 <制限>하지 않는데에서도 起因하는 것이다<sup>95)</sup>

現代의 모든 社會的・政治的・國際的不安의 根本的原因은 마땅히 至上最高의 價値原理로 署여야 할 것이 그렇지 않는, 말하자면 價値觀의 顛倒라는 事實에 起因한다고 하겠다. 人格의 成長이라는 唯一最高의 原理로서의 價値가 忘却・無視되고 傍系의・從屬의 原理로서의 物件이 至上最高의 價値의 王座에 爵臨할 때 거기에는 自發的인 創造의 에너지와 사랑은 枯渴되고 만다. 그 곳에서는 利己의 個人主義의 弱肉強食의 無政府主義의 戰捲이 아니면, 恒常 恐怖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깔린 全體主義社會가 있을 뿐이다. 設使 루소의 <集團個性>에 依하여 各個人의 平等이 實現되었다고 하여도 그런 社會를 理想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各者가 全體의 奴隸인 社會는 各者가 一人의 專制者の 奴隸인 社會 보다 別로 더 좋아진 것은 없다. 平等은 全員이 自由로운 곳에도 存在하나 各者가 다 全體의 奴隸인 곳에서도 存在한다. 이 事實은 平等 그것 自體만으로서 좋은 社會를充分히 이룰 수 없음을 말하여 준다><sup>96)</sup>, 即各個人의 自由없는 平등은 無意味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利己主義의個人主義가 彌滿하고 있는 現實속에 살고 있다. 人格보다도 그것의 成長을 為하여 必要한 物質과 合理的能率性이 價値의 最高王座를 占하고 있다. 이는 社會의 無秩序와 無政府狀態를 招來할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 加上하여 階級至上主義의 全體主義獨裁의 侵略의 危脅에 우리는 不斷히 直面하고 있다. 이 利己主義의個人主義와 階級至上主義의全體主義의 危脅을 克服하기 為하여 <國民總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오늘날 強力하게 政府와 一般知識層에 依해서 高唱・要請되고 있는 때는 또 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國民總和>가

94) 制限이란 概念에는 2個의 理論이 内包되어 있다. Rosco Pound는 <한편으로는 人間性을 考慮하여 理性이 人間行動을 制約 賦與한다는 制限의 理論이 있다. 또 한편에는 道德의性品이나 自然權이 人間속에 在하여 人間性에서 演繹되어 나온 理性에 依해서 表示된다는 理論이다>. (Rosco Pound, *The Spirit of Common Law*, p. 88) 前者は 스토아思想에서 由來하여 16C에 Grotius 以前의 學者에 依해서, 後者は Grotius에 依해서 發展되었다. Grotius는 <……自然權은 人間속에 在하는 特質로서 理性에 依해서 表現되고 自然法에 依해서 承認되며 따라서 自然法이 그 効力を 賦與하는 特性이다>고. (Ibid. p. 89) 即自然法은 從前과 같이 單純히 自然法에 그치는 것이며 또 永遠히 妥當하는 原則이라고 思料되어 왔던 것과는 다르다. 即 Grotius가 생각하는 自然法은 神에서 緣由한 靈魂인 故로平等한 道德의 價値를 지니고 神의 理性의 要素를 賦與 받은 個個人의 實體가 存在한다는 假定위에 存立할 수 있는 從來에 없었던 새로운 概念이었다. Cf. J. H. Hallowell, *The Decline of Liberalism as an Ideology* 韓已植譯 p. 35. 33-34.

95) <個人主義의 哲學은 個個人의 利益과 意思를 尊重할 뿐만 아니라 또 이 利益과 意思에 對한 客觀的인 制限을 承認할 것을 要求한다. 主觀의 利益과 客觀의인 制限사이에 連關이 杜絕되었을 때 個個人主義는 無責任한 主觀主義 即 無政府主義로 陞落되고 만다. 個個人意志에 對한 모든 主觀의인 制限이 除去됨에 絶은 必然의으로 無政府狀態가 아니면 專制政治를 向하여 열리게 되는 것이다>. Ibid. p. 210.

96) B. Russell, *Authority and the Individual*, N.Y. 1949. pp. 48-49. <A Society in which each is the slave of all is the only a better than one in which each is the slave of despot. There is equality where all are slaves, as well as where all are free. This shows that equality, by itself, is not enough to make a good society>

Rousseau 의 <一般意志>와 同一한 悲劇的結果를 招來하지 間接 기 為해서는, 모든 成員의 人格의 成長에 至上最高의 價值를 認定하는 理想主義의 個人主義의 價值原理 위에 豊固히 立脚하여야 한다는 信念으로 부터 再出發하여야 할 것이다. 이 價值原理야 말로 社會의 各成員의 自發的인 同胞愛와 創造的에너지의 源泉이며, 이것에 依해서만 真正한 <國民總和>를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理想의 個人主義라는 至上最高의 價值原理에 殘餘의 모든 傍系의 · 第二義的價値가 制限, 順服되어어야 한다. 이 價值觀의 確立은 모든 個人에게 要請되나, 그 中에서도 特히 政治的 엘리트와 知性人們의 이에 對한 認識과 그 實踐이 切實히 要請된다. 理想主義의 個人主義를 至上最高의 價值의 王座으로 다시 轉移하기 為하여서 教育의 使命은 實로 重且大하다 那서 네리스티크한 內容 끗지 않게 人道主義的(Humanitarian)인 內容이, 經濟產業的 · 技術的인 內容 끗지 않게 人格敎養의 內容이 세로운 <國民敎育>을 위하여 果敢히 補強되어야 한다.

社會成員의 모든 人格成長을 志向하는 理想主義의 個人主義야 말로 真正한 民主主義이며, 個人과 國家 之間의 가장 完全하고 가장 人道主義의 形態라고 하겠다. 그러나 理想主義의 個人主義는 그 課業實現의 어려움과, 人間內部에 本源的으로 潛在하는 不可避의 弱點과 人間組織體 속에 本質的으로 內在하는 脆弱性을 自認 し 할 程度로 樂天的의 理想主義는 아니다. 그러나 理想主義의 個人主義는, 人間은 不完全한 存在이나 完全을 志向하여 不斷히 努力하는 動力를 緊張的存在的로서 教育에 依한 人間性의 開發과 成長의 可能性을 確信하는 點에서 本質的으로 樂天의이다. 따라서 理想主義의 個人主義는 恒久의 完成品도 아니며 유토피아도 아니다. 그것은 人間과 人類의 自己實現을 為한 不斷한 成長과 努力의 過程인 것이다.

#### 參考文獻

- Hans Kohn; Political Ideologies of Twentieth Century, Harper Torch Books. 1966.
- Hans Kohn;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1956. N. Y.
- Hans Kohn; Revolution and Dictatorships. London Oxford. 1943.
- C. 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6th. ed. N. Y. 1959.
- C. Hayes; Contemporary Europe since 1870. Macmillan N. Y. vol. II. 1939.
- C. Hayes; Nationalism, —A Religion N. Y. 1960.
- C. Hayes, M. W. Baldwin, C. W. Cole, History of Europe, 1953. N. Y.
- F.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3rd. ed. 1933.
- Louis Snyder; the Dynamics of Nationalism. 1964. N. Y.
- Reves; the Anatomy of Peace. 1964.
- B. C. Shafer; Nationalism—Myth and Reality. 1955.
- C. M. Woodhouse; the New Concert of Nations. 1964.
- F. Hertz; Nationalities in History and Politics.
- A. Report by A Study Group of the Royal Institutions of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ism
- Laski, H. J.; Liberty in the Modern State. 1947.
- English Historical Documents, ed. by. Andrew Browning. 1660—1714. III, London. 1953.
- John. Locke; Two Treaties on Government.
- G. M. Trevelyan; The English Revolution 1688—9, Oxford. 1956.
- J. J. Rousseau, Social Contract,

- J. J. Rousseau, Emile.
- C. E. Vaughan; The Political Writings of J. J. Rousseau. vol I, II.
- Carl Schmitt; Die Diktatur, dritte Aufl.
-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1941. Vol. I.
- A. 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1925.
- E. Troeltsch; The Ideas of Natural Law and Humanity in World Politics, in Otto Grieke, Natural Law and the theory of Society, 1500. to 1800(trans. by E. Barker 1934)
- Colombia university press;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2nd. ed. 1951.
- Hegel, Philosophy of Right, trans by S. W. Dade. London 1896.
- Hegel, Phenomenology of Mind, trans, by J. B. Baillie 2nd. ed. N.Y. Macmillian. 1931. Vol. I.
- E. Fromm; Escape from Freedom. N. Y. 1950.
- C. E. Merriam, Political Power. N. Y. 1934.
- Adam Roberts(ed); Civilian Resistance as a National Defence. 1969. Penguin Books.
- B. Russell; Authority and the Individual, N. Y. 1949.
- E.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1945. Macmillian. 大躍進譯, ナショナリズムの發展
- J. F. Neurohr, Der Mythos von dritten Reich, zur Geistesgeschichte des Nationalsozialismus. 1957. 山崎章甫, 村田宇兵衛譯, 第三帝國の神話——ドイツ精神史未來社 1963.
- E. Heimann; Capitalism,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1945. 士屋譯 昭和24年
- J. H. Hallowell, the Decline of Liberalism as an Ideology. 1943. 韓己植譯 自由主義理念의沒落
- 崔文換, 民族主義의 展開過程 1959 博英社
- J.L. タルモン, 市川泰治郎譯 フランス革命と左翼全體主義の源流
- B. D. Jouvenel, Du pouvoir, Jenéve. 1947. 陸士論文集第Ⅲ輯(1965. 12)崔昌圭, 政治權力論에의 세로운 模索
- Hans Kohn; Romanticism and the Rise of German Nationalism, the Review of Politics, Vol 12 (October, 1950)
-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1944.
- Hans Kohn; Prophets and Peoples, Studies in Nineteenth Century Nationalism.
- Hans Kohn; Napoleon and the Age of Nationalism,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xxII. (1950)

